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이와야사자나미(巖谷小波)의
『고가네마루(こがね丸)』고찰
- 등장인물에 구현된 시대정신 -

濟州大學校大學院

日語日文學科

全 昭 暎

2020年 7月

이와야사자나미(巖谷小波)의
『고가네마루(こがね丸)』고찰
- 등장인물에 구현된 시대정신 -

指導教授 金 鸞 姬

全 昭 暎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7月

全昭暎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確認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7月

목 차

국문 초록

I. 서론	1
II. 본론	4
1. 『고가네마루(こがね丸)』의 탄생배경	4
2. 등장인물의 표상	10
3. 동서양고전의 다양한 심상	18
4. 작품 속에 투영된 시대정신	23
1) 군인칙유(軍人勅諭)	24
2) 교육칙어(敎育勅語)	32
III. 결론	42
참고문헌	45
ABSTRACT	48

<국문초록>

이와야사자나미(巖谷小波)의 『고가네마루(こがね丸)』고찰
-등장인물에 구현된 시대정신-

전소영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김난희

본 논문은 일본 최초의 근대 아동 창작동화로 알려져 있는 이와야 사자나미(岩谷小波:1870년~1933년)의 『고가네마루(こがね丸)』(1891)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본고는 작품의 탄생배경과 함께 메이지기의 시대정신이 어떤 식으로 등장인물에게 구현되고 있는지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고가네마루』는 당시 신흥출판사인 하쿠분칸이 기획한 『소년문학』 총서의 「제1편」으로 집필되어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서구에서도 아동이라는 개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야의 일이다. 같은 시기 사자나미가 처음부터 아동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하며 작품을 썼다는 것이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본 근대 최초의 아동용 동화작품이라는 의의(意義)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찰하였다. 순수한 아동을 위한 창작동화 안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전반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군인칙유’와 ‘교육칙어’의 충과 효의 이념이 교묘히 들어있음을 문제 의식으로 제기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고가네마루』의 탄생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자나미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에 주목하였으며, 이것이 그가 동화작가로 출발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사자나미를 둘러싼 환경은 책과 예능을 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으며 그가 가업인 의학이 아닌 문학을 추구하게 된 과정을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지닌 이름의 표상을 분석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도출했는데, 등장인물은 이름에 상응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인공인 고가네마루는 전형적인 영웅담의 모티프를 지녔다. 작품은 주인공을 둘러싼 조력자와 적대자라는 대립 구도를 보인다. 작가는 인물들의 역할을 통해 메이지 시대의 특수한 시대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동서양 고전의 다양한 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자나미는 잘 알려진 일본의 민담들을 작품에 삽입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익히 알고 있는 설화의 후속편을 보는 듯한 흥미를 유발했다고 보았다. 그밖에 중국의 삼국지와 수호지 등도 인용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심상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으로 군인척유와 교육척어를 들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메이지 신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만든 군인척유와 교육척어 안에는 충과 효의 사상이 부각 되어있다. 이것이 작품 속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메이지시대라는 격동기 속에서 성장한 작가 사자나미가 스무 살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집필한 것이다. 모험심이 강한 어린이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청년작가이었기에 극적인 구성과 기발한 발상을 창출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작품은 일본 근대아동문학의 장을 연 것은 분명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에 제국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I. 서론

이와야 사자나미(岩谷小波:1870년~1933년, 이하 사자나미)는 일본근대아동문학 탄생의 선구가 된 작가로 아동문학을 비롯해 아동문화의 건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무로마치(室町時代, 1338년~1573년)시대의 오토기조시(お伽草子)¹⁾라는 고전문학 장르의 이름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의미를 새로이 부여하여 ‘오토기바나시(お伽噺)’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는 『아카이도리(赤い鳥)』(1918)를 통해 ‘동화’라는 단어가 보편화 될 때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 작품을 일컫는 용어였다.

사자나미는 오토기바나시 계열의 『일본옛날이야기(日本昔噺)』, 『일본동화(日本お伽噺)』, 『세계동화(世界お伽噺)』, 『세계동화문고(世界お伽噺文庫)』를 시리즈로 출간하였다.²⁾ 특히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던 옛날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동화의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한 뒤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은 지대한 업적이다.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를 들려주는 구연동화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정착시킨 것은 일본 아동문학의 역사에서 돋보이는 업적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독일동화집 『메르헨』을 읽고 이 이야기에 매료되며 문학에 눈을 뜨게 된다. 유년시절부터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접한 경험과 메르헨에서 받은 감명을 바탕으로 1891년에 동화 『고가네마루(こがね丸)』를 집필하였다. 이 작품은 수많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어른들의 관심을 받은 근대 일본 아동문학사의 획기적인 작품이 되었다. 『고가네마루』의 성공은 어린이를 위한 일본 최초의 근대 창작동화작가라는 명성을 얻게 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아동문학자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고가네마루』는 1887년에 창립된 신진출판사인 「하쿠분칸(博文館)」에서 발행한 『소년문학』³⁾총서(叢書)의 「제1편」으로 실렸다. ‘소년문학’이라는 용어는 이때 처음으로 사용되었

1) 가마쿠라(鎌倉時代)시대 말부터 에도시대(江戸時代)에 걸쳐 성립한 소설장르. 그림을 곁들인 단편 이야기의 형식이다. 보통 무로마치(室町)시대 소설 전반을 지칭, ‘무로마치이야기(室町物語)’라고도 말한다.

2) 모두 하쿠분칸에서 발행한 것으로 일본옛날이야기(전24권 1894-96) 일본동화(전100권 1899-1908) 세계동화문고(전50권 1908-15) 岩谷大四(1993) 『波の聲音』文春文庫 pp.202-252

3) 『소년문학』총서는 이와야 사자나미,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에미 스이인(江見水蔭), 야마다 비묘(山田美妙)등 겐유사(硯友社) 동인을 비롯하여 많은 작가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1891-1894, 32편 발간) 총서에 수록된 작품은 일본 역사상의 위인이나 영웅담이 대부분으로 당시 큰 인기를 얻어 여러 판을 출판하였다.

는데 이 말을 고안해 낸 사람도 바로 사자나미다. 『고가네마루』 「범례(凡例)」에서 “이 책의 이름을 『소년문학』이라고 한 것은 일본에는 적당한 속어가 없어서 ‘소년용 문학’이라는 의미로 독일어의 ‘Jugendschrift(유겐트슈리프트)’에서 따와 임시로 붙였다.”⁴⁾고 말한다.

『고가네마루』는 ‘고가네마루(이하, 고가네)’라는 이름을 지닌 개가 주인공이며 그의 수행 길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미지의 세계도 보여주고 전통적인 무용담도 적절히 들어있어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였다. 그러나 근대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자각과 독립적인 시민의식의 결여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가네마루』의 작품세계는 삶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충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어 시대 역행적인 부분이 많다.

서구열강의 경우는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 국민국가를 이룩하였지만, 후발주자인 일본의 경우는 천황을 정점에 두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었다. 메이지 신정부는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적 윤리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전근대의 윤리에 토대하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작품을 근대작품이라 명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시대에 개인의 창작물로 나온 동화라는 점에 주목하여 문학사적으로는 근대창작동화의 효시라고 말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신정부가 국민국가를 수립하면서 그 통합의 장치로서 내건 것은 ‘군인칙유(軍人勅諭)와 교육칙어(教育勅語)’이다. 이것은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근대화 과정의 독특한 제도이다. 그 영향력은 자국의 국민을 교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를 침탈하는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신무장으로까지 이어진 것이기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자나미는 『고가네마루』라는 작품에 메이지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스토리 전개가 극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서 세인의 관심과 인기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작품이었다. 작가는 미래의 일본

4) “この書題して「少年文學」といへるは、少年用文學との意味にて、獨逸語のJugendschrift (juvenile literature) より來れるなれど、我邦に適當の熟語なければ、仮にかくは名付けつ。”
岩谷小波(1994) 『日本兒童文學名作集(上)』「こがね丸」岩波文庫 p.60

을 이끌어 갈 주체인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은연중에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무의식중에 국민을 의식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점에 착안하여 이 작품을 다루게 되었다.

『고가네마루』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텍스트 자체를 다룬 선행연구는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본에서는 사자나미의 전기를 소개할 때 반드시 『고가네마루』를 언급하고 있으나 작품의 대략적인 소개에 머물고 있다. 『고가네마루』작품 자체보다는 그의 구연동화나 아동극 개척에 대한 연구⁵⁾가 우세하다. 이 중에는 『고가네마루』와 괴테의 『여우 라이네케』연관성의 일환으로 여우 이미지에 관한 내용과 『고가네마루』의 문체에 관한 문제점, 내용의 잔인성과 성인의 세속적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논고⁶⁾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도 단편적인 언급에 머물고 있을 뿐 텍스트 자체를 깊이 분석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의 사자나미 연구는 다른 일본 근대작가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동화작가 방정환이 사자나미의 영향을 받은 것과 관련한 비교문학적 연구가 보인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이재우의 논문⁷⁾이 있다. 이재우는 『고가네마루』를 집필하게 된 사자나미의 전기적 고찰을 했다. 사자나미의 필명인 ‘사자나미(小波)’의 한자음을 방정환이 자신의 호로 사용한 것에 주목해 소파 방정환과의 비교문학적 고찰을 하고 있다. 이 안에서 『고가네마루』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 분석은 피상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가네마루』를 둘러싼 환경과 저널리즘 등 작품 외적인 것을 분석한 내용이다.

본고는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탄생배경과 메이지기의 시대정신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도출하고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등장인물이 보이는 행동 양식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위해 그 역할을 맡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5) 오타케 기요미(2008) 「이와야사자나미(岩谷小波)와 근대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15)pp.149-167
김성연(2016) 「이와야 사자나미의 하이가(俳画)」-구연동화 활동 양상과 하이가의 역할에 대해서- 『일본근대학연구』(54) pp.197-218

6) 王瑜(2009) 『こがね丸』論, 同志社大学

7) 이재우(2009) 「이와야 사자나미 연구 -방정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09) 근대일본최초의 창작아동소설 『고가네마루(こがね丸)』연구-반근대(전통)와 근대의 경계-일어일문학연구 (69) pp.425-440

텍스트로는 『日本児童文学名作集(上)』⁸⁾에 수록된 「こがね丸」를 사용하였으며 고전문체이기 때문에 내용의 매끄러움을 위해 의역을 ([]) 하였고 번역은 논자가 하였다.

II. 본론

1. 『고가네마루(こがね丸)』의 탄생배경

『고가네마루』에는 일본의 전통문학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고전에 대한 해박한 교양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다. 이는 사자나미의 성장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할머니와 큰형이다. 특히 유년시절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대변해 주는 것은 사자나미의 일기 『나의 오십년(我が五十年)』이다. 이 일기에서 사자나미는 그의 유년시절을 상세히 회고하고 있다.

묘하게 식물을 좋아하여 정원 구석에서 자라난 싹을 가져와 작은 분재를 가꾸어 보기도 하고 또 돌을 주워 와서 모형 정원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에야 돌이켜보니 집의 정원이 넓고 그 가운데에 화단이 있었고 할머니가 늘 식물을 가꾸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구라(神楽)를 상당히 좋아하였다. 이것은 산신이나 천신의 제삿날에 반드시 가구라를 하였는데 그곳으로 가서 하루 만나절을 있을 정도로 가구라를 흥내 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중고품 가게에서 사자탈, 가면, 큰 북 등 보통의 것보다 큰 것을 사 와서 주셨을 때는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가구라를 좋아하였기에 어린 나이에 도 당연하다는 듯이 노와 교겐에도 취미가 있었다. 이 또한 역시 할머니의 감화 덕분이다. (중략) 열 살도 안 된 나이로 바둑을 배우고 덴구하이카이를 흥미로워하고 (중략) 그림 그리기를 배우게 된 것도 모두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었다.

また妙に植物がすきで、庭の隅から芽生えを取って来っては、それで小さな盆栽をこしらえたり、また石を拾って来て、箱庭をこしらえる事も好きだった。これは思うに、家の庭が広がった事や、その中に花壇があって、祖母が始終植木いじりをして居たから、それにかぶれたのだろう。それから今一つ、神楽の真似が大好だった。これは山王や天神の縁日に、其都度必ず出かけて行って、神楽堂の下で半日暮した位だったから、

8) 桑原三郎·千葉俊二編으로 1994년에 岩波文庫가 발행하였다.

何うしても真似をせずには居られないので。ある時父が古道具屋から、獅子頭、面、太鼓などの可なり大きいのを買って来てくれた時は、嬉しくて夜も寝られない位だった。神楽が好きな位だったから、無論能や狂言にも、子供の割には趣味を持って居た。それもやはり祖母の感化だ。(中略)十才にも成らぬ身を以って、基石を列べる事を覚えたり、天狗俳諧を面白がったり、(中略)、画を書きおぼえたのも、皆祖母に可愛がられたお陰だ。9)

위의 일기를 보면 사자나미는 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고 식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였으며 전통 예능인 가구라(神楽) 애호가임을 알 수 있다. 유년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자나미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일본의 전통 극문학인 노(能)와 교겐(狂言)에도 심취하게 되고 그밖에도 다양한 취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가구라나 노를 좋아한 그의 흔적은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초스이가 노래를 하면 고쿠에는 춤을 춘다. 그가 시노다의 숲으로 뛰어오르며 마침 그 자리에 있는 등나무 줄기를 잡아당겨 그 줄기를 타며 곡예를 선보인다.

聴水が唄へば黒衣が舞ひ、彼が篠田の森を躍れば、これはあり合ふ藤蔓を張りて、綱渡の芸などするに、(p.98)

「12회」에서 여우 초스이(聴水)와 원숭이 고쿠에(黒衣)가 호랑이 대왕 긴보(金眸)의 주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장면이다. 초스이가 노래를 하면 그 음률에 맞춰 고쿠에가 춤과 곡예를 하는 것으로 마치 가구라의 한 무대를 연상하게 한다. 사자나미의 전통예능에 대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대목으로 그가 문학을 지향하게 된 발판이 유년기의 경험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가네마루』는 자연묘사가 탁월하고 문체가 흥을 돋운다. 특히 숲과 들판, 달 등 자연에 대한 묘사는 매우 섬세하고 수려하다. 이러한 그의 표현법으로 인해 잔인한 장면조차도 하이쿠의 한 구절을 연상시키게 하여 독자들의 거부감을 줄였는데 다음과 같다.

하얀 눈을 일으키며 호랑이는 동굴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발걸음 뒤로는 선혈뿐, 하얀 눈 위에 홍매화를 피우네.

9) 巖谷小波(1998) 『我が五十年』ゆまに書房 p.11

あと白雪を蹴立つつ、虎は洞へと帰り行く。あとには流るる鮮血のみ、雪に紅梅の花を散らせり。(p.66)

「2회」에서 호랑이 긴보가 고가네의 아버지 쓰키마루(月丸)를 죽인 후 입을 물고 가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적나라한 죽음의 장면을 아동이 입을 책에 담았다는 이유로 지식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은 대목이기도 하다.

유복한 환경 속에서 교양 있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것은 그가 후일 ‘이야기 할아버지(お伽のおじさん)’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일본 최초 구연동화의 개척자가 된 것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할머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친 인물은 큰 형 류타로(立太郎)이다. 류타로는 독일유학을 한 공학도다. 일찍이 사자나미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버지보다 오히려 큰형이었다. 사자나미보다 16살이 많은 형 류타로는 동생에게 독일어를 배우도록 권유했다. 아버지보다 엄격하고 고지식했으며 동생이 어려움 없는 환경에서 철없이 자라는 걸 염려하여 자주 훈계를 해서 사자나미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라고 한다. 아버지와 형의 제안으로 사자나미는 8살 때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독일어는 독일유학을 마치고 온 식물학자 마쓰노(松野)의 독일인 처 클라라 부인으로부터 배웠다. 큰형은 공학도의 길을 가고 둘째 형은 양자로 가게 되어 집안의 가업인 의업을 계승해야 할 사람은 사자나미 밖에 없었다. 류타로는 장남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사자나미를 의사로 만들고자 동생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사자나미는 소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학 공부의 필수과목인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훈몽학교(訓蒙學舎)에 들어가 독일어와 수학을 배웠다. 그 후 의학 예비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나미는 의학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결정적 상황을 맞이한다. 10)

몇 명의 친구들과 의과대학 해부학실에 견학을 가게 되었다. 아직 열서너 살 소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견학을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고 창밖에서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였다. 실내에는 대여섯 명의 학생이 알코올에 절인 인체의 각 부분을 여기저기 잘라내어 참고서를 보며 경쟁하듯 연구하고 있었다. 두개골을 반으로 나누어 놓은 것, 얼굴 피부를 획 벗긴 것, 손목을 잘라놓은 것, 오장육부를 펼쳐놓은 것들이 전부 기분 나쁘고 소름 돋는 것들이라 스에오

10) 岩谷大四(1993) 『波の聲音』文春文庫 pp.21-26 참조

는 그것을 한 번 본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고 속이 울렁거리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친구들의 소매를 잡아끌며 “이제 가자” 하였으나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흥미롭게 정신없이 보고 있었다. 스에오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잔디에 누워 숨을 크게 내쉬고 근처에 피어있는 꽃과 꽃 주변으로 날아든 나비를 감상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없어, 싫어, 싫다.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라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数人の仲間と医科大学の解剖室へ見学に行くことになった。と言っても、まだ十三、四の少年たちだから、正式に見学させてもらえるわけではなく、窓の外から覗き見に行ったのである。室内では、五、六人の学生が、アルコールづけの人体の各部を、其所此所で切り割いて、参考書と首っ引きで研究しているところであった。頭の鉢を半分に割ったのや、顔の皮をぐるりと剥いたのや、手首の切り離したのや、臓腑の明け放したのや、気味の悪いものばかりであった。季雄はそれを一眼見ただけで、忽ち気分が悪くなった。眩いがしそようになった。「おいもう行こうよ」と、蒼い顔で友達の袖を引いたが、他の連中は、案外平気で、むしろ興味深そうに夢中で覗いていた。季雄は仕方なしに、自分だけ窓から離れ、芝生の所まで来て寝ころんで、大きく息を吸い、ほっと息をついた。そして、あたりに咲いている花や、その花に戯れる蝶を眺めて、ようやくひと心地ついた。「ああ、厭だ!厭だ医者なんかとって自分には出来ない!真平だ!」と心の中で叫んだ。

(『波の跄音』p.26)

이 사건 이후 사자나미는 의학 공부에 점차 흥미를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연극공연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친구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응급환자가 생기자 공연 도중임에도 급히 나가는 걸 보면서 사자나미는 의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그는 환자가 생기면 언제라도 가봐야 하는 자유가 없는 의사의 길은 자신의 적성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마침내 의학 예비학교를 그만둔다. 사자나미가 16세가 되었을 때 독일학협회학교(独乙学協會学校)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독일어 공부를 한다. 독일어 실력은 향상되었고 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독일유학 중이던 큰 형이 선물해준 독일 동화책을 번역도 해보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창작도 시도해 보았다. 독일학협회학교 헤링그 선생님의 일본어 통역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사자나미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동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교회 행사 때는 아이들의 연극도 도와주며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을 즐겼다.¹¹⁾ 이처럼 사자나미는 어린이들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후 사자나미는 겐유사(硯友社)¹²⁾라는 문학단체에 가입한다. 이곳의 동인잡지 『가

11) 巖谷小波 (1998) 『我が五十年』ゆまに書房 pp.58-59 참조

12) 1885년 대학 예비학교의 학생이었던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야마다 비묘(山田美妙)등에 의해

라쿠다문고(我樂多文庫)』「제1호」에 사자나미 산진(漣山人)이라는 필명으로 「오월의 잉어(五月鯉)」 연재¹³⁾를 시작했다. 소년 소녀의 신선한 사랑 이야기로 꽤 호평을 받았으며 몇 년 후에 순요도(春陽堂)에서 『첫 단풍(初紅葉)』으로 제목을 바꿔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¹⁴⁾ 그리고 「조개 오누이(妹背貝)」를 연이어 간행하였는데 이 책도 소년 소녀의 사랑을 다루었다. 형에게 선물 받았던 독일동화집에서 한 편을 번역하여 「도깨비수레(鬼車)」라는 제목으로 『가라쿠다문고』에 실기도 하였다. 겐유사의 다른 동인들과는 달리 사자나미는 소년소녀물에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겐유사의 동인들은 사자나미를 ‘어린이 작가’라고 평하였다.

당시는 저널리즘의 전성기였다. 많은 출판사가 생겨나고 세분화된 다양한 잡지¹⁵⁾들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했다. 이미 겐유사에서 소년 소녀 취향의 작품을 쓴 바 있는 사자나미에게 주목한 사람이 신흥출판사 하쿠분칸의 오하시 신타로(大橋新太郎)였다. 오하시 신타로가 사자나미를 찾아와 『소년문학』「제1편」집필을 의뢰한다. 그는 그때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해 십일월 초 하쿠분칸의 ‘오하시 신타로’가 사자나미의 집을 찾았다. 하쿠분칸은 당시 떠오르는 신흥출판사로 예치고 나가오카에서 온 ‘오하시 산헤이’가 경영하고 있었으며 새해부터 ‘소년문학’이라는 총서를 새로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총서의 제1편으로 「오월의 잉어」, 「조개 오누이」처럼 말하자면 순정적인 작품을 쓰고 있던 사자나미를 특별히 택하여 아들인

결성된 문학단체, 동인잡지 「가라쿠다문고」를 발간하여 고요가 사망하는 36년(1903)까지 약 15년간 지속하였다.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가와카미 비산(川山眉山)이 참여하고 거기에 고요의 문하에서 이즈미 교카(泉鏡花)와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가 가세하면서 페이지 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문단의 주류가 되었다.

13) 岩谷大四(1993) 『波の聲音』文春文庫 p.58

14) 앞의 책 p.63

15) 『가라쿠다 문고(我樂多文庫)』(1885-1889)겐유사의 기관지. (소설·신체시·와카·센류 등 다양한 글을 게재). 『국민의 벗(國民之友)』(1887-1898) 민유샤 발행(평민주의에 입각). 『문예클럽(文芸俱樂部)』(1895-1933)하쿠분칸 발행. 대중오락지. 『문학계(文學界)』(1893-1898) 낭만주의운동전개. 『소년문무(少年文武)』(1890-중간불명)아동잡지. 『소년원(少年園)』과학·문예·이과·미술을 중심으로 문무균형을 이룬 교육을 강조. 『소년원(少年園)』(1888-1895) 아동잡지(월2회 발간), 12-13세부터 18세 정도의 소년을 독자 대상으로 함. (국가체제의 긍정과 찬미, 입신출세, 산업중시, 실학 존중). 『소년세계(少年世界)』(1895-1933) 아동잡지, 하쿠분칸 발행, (창간호에 ‘천황폐하 만세, 제국 만세’라는 글자로 장식. 제국주의 사상이 농후). 와카마츠 시즈코, 이와야 사자나미 등의 작품 게재. 『시라가미 소시(しらがみ草紙)』(1889-1894)문학평론이 주로게재. 여학잡지(女學雜誌)(1885-1904) 여성교양 문예지, 이와모토 요시하루(岩本善治)등이 주축이 되어 창간. (어머니의 자녀교육을 중시 ‘어린이 이야기’라는 코너 개설). 『일본평론(日本評論)』(1890-1894) 정치·경제·교육 등의 평론과 외국문학 번역·소개. 『제국문학(帝國文學)』(1895-1920) 다카야마 초규, 이노우에 테즈지로 등이 편집 (문예지와 철학지). 『중앙공론(中央公論)』1887년 8월 창간. 『태양(太陽)』(1895-1928, 1896-1899)월 2회 간행, 하쿠분칸 발행. (정치·경제·사회평론)

신타로를 사자나미에게 보낸 것이다. 사자나미는 그 당시 자신의 신변에 얽힌 사건을 바탕으로 작품을 쓰고 있었지만, 그것은 작품세계의 폭이 좁고 깊이가 없었다. 고요와 비묘의 작품과 비교하면 문장의 신선함은 있었지만, 독창성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 이른바 성인 취향이 아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고요를 이길 순 없어’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같은 방향의 문학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 한 구석에 떠올린 것이 큰형 류타로가 보내 준 오토의 메르헨이었다. ‘이런 것은 아직 일본에는 없어’라고 여겼으며 그 무렵, 해외 문학의 수입으로 ‘이솝’이나 ‘걸리버 여행기’ ‘아라비안나이트’라는 번역 책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동 상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청년 취향의 읽을거리였다. 즉 어린이를 위한 활자 책이라는 것은 없었다. 사자나미는 자신이 문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막연히 생각한 것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확고하게 정하진 않았다.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이 무렵에 오하시가 찾아와 ‘소년문학’ 기획을 권유한 것이다. 사자나미는 기뻐하며 승낙했다. 알 수 없는 무언의 계시를 받은 느낌이 들었다.

その年の十一月の初め、博文館の大橋新太郎が、漣の家を訪れた。博文館は当時新興の大出版社で、越後長岡から出て来た大橋佐平が経営しており、新年度から「少年文学」という叢書を新しく発刊する企画を立てていた。その第一輯として「五月蝕」「妹背貝」等、どちらかと言えば清純な作品を書いていた漣に白羽の矢を立て、息子の新太郎を漣のところへ差し向けたのである。漣はその頃、自分の身边にまつわる出来事をもとに作品を書いていたが、それはあまりにも世界がせまく、幅と奥ゆきがなかった。紅葉や美妙らの作品とくらべると、文章の新鮮さはあったものの、独創性にとぼしく、くちばしがまだ黄色いという感じで、いわゆる大人向きではなかった。心のどこかで「紅葉たちにはかなわぬ」という気持を持っていた。同じような文学の方向をみざしてはとてども太刀打ち出来ないと思っていた。そして、時々心の片隅に浮んで来るのが、立太郎から送られたオットーのメルヘンのことであった。「こういうものがまだ日本にはない」と思っていた。その頃、海外文学の輸入につれて「イソップ」や「ガリバル回島記」や「アラビアン・ナイツ」といった翻訳本が出はじめていたが、それは子供相手というよりは、むしろ青年向けの読みものであった。要するに子供のための活字の本というものはなかったのである。漣は自分が文学で立って行くためには、何か新しい道を拓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た。そしてそれは、子供向きの文学ではないかと、漠然と考えていたが、まだはっきりとしたふんぎりはついていなかった。そこへ大橋が訪ねて来て、「少年文学」という企画を持ち込んで来たのである。漣は喜んで承諾した。何か、声なき声のような啓示を受けたような思いがしたのである。(『波の聲音』pp. 75-76)

사자나미가 흔쾌히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당시 사자나미 자신이 벽에 부딪혔던 창작의 고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취향과 청년 취향의 작품은 당시 발표되고 있었으나 오토의 ‘메르헨’ 같은 작품은 일본에 없다는 통찰을 한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것이다’ 즉 동화라고 마음속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하쿠분칸에서 ‘소년문학’ 첫 작품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니 계시처럼 느껴진 것은 당연하다. 얼마 후 사자나미는 출판사 하쿠분칸을 찾아가 신타로에게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이야기를 설명했다. 신타로 역시 흥미로워하였고 사자나미는 지체없이 집필을 시작하여 약 70장 정도의 작품을 5일 만에 완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일본아동문학의 호시가 된 『고가네마루』이다. 고가네 마루는 상(上)·하(下) 두 권으로 되어있다. 상권은 1회에서 8회, 하권은 9회에서 16회로 구성되어있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호응마저 얻어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 출판매체에서 찬사와 호평을 보냈다. 그중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이렇게 기사화하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고가네마루』 한차례 호령하니 모든 집에서 그 성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책이 출판되면 최고의 문학 취향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 스며들 것이다”라고 평했다.

「読売新聞」は、「『黄金丸』一たび吠えて万軒其の実を結び此やうの冊子を出版せば高上の文学趣味自ら児童の心目に染みん....」と評した。(『波の聲音』p.78)

유력 신문사의 이와 같은 호평은 독자층을 폭넓게 확보하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줄거리가 흥미진진하고 파란만장한 모험의 세계가 펼쳐져 어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으며 깊은 감명을 선사했다고 본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민담이 재치 있게 어우러져 있어서 독자들을 몰입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민담 속의 동물들을 현재의 시간 속에 등장시키는 방법은 기발하다. 성인 독자들은 작품 속에 재현되는 옛날이야기를 보면서 어릴 적 추억을 회상시켰을 것이다. 때로는 어려운 고사성어가 나오기도 해서 교양을 지닌 성인들의 마음도 충족시켰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으로 사자나미의 명성은 순식간에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그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소년문학 대명사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2. 등장인물의 묘상

① 고가네 마루(黄金丸)와 와시로(鷺郎)

『고가네마루』는 고가네마루(黄金丸)와 와시로(鷺郎)라는 두 마리 개(犬)가 중심이 되어 활약한다. 이 둘은 ‘선(善)’을 대표하고 호랑이 긴보(金眸)와 여우 초스이(聰水)는 ‘악(惡)’을 대표함으로써 대립 구도를 이룬다. 전근대적 주제인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속담과 사자성어를 동원하는가 하면 동서고금의 민담도 인용한다. 이 선과 악 두 개의 대립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 선의 세력의 조력자로는 소와 쥐와 토끼가 등장한다. 악의 세력의 추종자로는 원숭이, 사슴, 곰, 멧돼지가 나온다. 동물들이 활약하고 있어 동물우화라고도 볼 수 있다.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보면 그 용모의 특징을 살리거나 외관의 모습에서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인공 ‘고가네마루(黄金丸)’의 이름은 그의 털의 색에서 유래한다. 태어났을 때 윤기 나는 갈색 털을 지닌 개(茶色毛)였는데 등 언저리에 황금빛 털이 섞여 있어서 ‘고가네마루’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2회」에 나온다. 이는 고가네가 장차 영웅적 존재가 될 범상하지 않은 개임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가 지닌 영웅적 표상은 「8회」에서 토끼 영감 아카메(朱目)를 통해서도 언급된다.

“내가 긴 세월을 살다 보니 어느 정도의 관상을 볼 줄 아는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다네. 그 짐승의 얼굴을 보고 그가 어떠한지를 안다네. 나의 안목과 식견은 열에 하나도 착오가 없네. 지금 내가 자네의 관상을 보니 정말로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명견이며 게다가 그 역량은 세상 짐승무리 중에서도 빼어나네. 머지않아 자네는 공명을 떨치게 될 걸세. (중략) 모든 동물의 태생은 대체로 암수 여러 마리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한 마리밖에 안 낳았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데 자네가 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네의 힘은 대여섯 마리의 힘이 겹쳐졌다고 해야 할 걸세. [게다가 그것뿐인가] 소의 젖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소 못지않은 능력도 더해지는 몸이 된 걸세. 분명 [자네는] 평범한 개의 운명이 아닐세”

「某幾歳の劫量を歴て、やや神通を得てしかば、自ら獸の相を見ることを覚えて、十に一も誤なし。今御身が相を見るに、世にも稀なる名犬にして、しかも力量万獸に秀でたるが、遠からずして、拔群の功名あらん。(中略) 総じて獸類は胎生なれど、多くは雌雄数匹を孕みて、一親一子はいと稀なり。さるに御身はただ一匹にて生まれしかば、その力五、六匹を兼ねたり。加之牛に養はれて、牛の乳に育まれしかば、また牛の力量をも受得て、けだし尋常の犬の猛きにあらず。(p.86)

고가네는 출생부터 성장까지 영웅담의 모티브를 담고 있다. 보통의 동물들은

한배에서 여러 마리가 태어나는데 고가네는 오로지 혼자 태어났으므로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와시로(鷺郎)는 뛰어난 사냥개로 설정한다. 언젠가 매를 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와시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이름 안에는 독수리처럼 용맹한 개라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동물로 인식되어왔다. 개의 충성에 관한 민담은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꽃피우는 할아버지(はなさかじい)’이야기¹⁶⁾가 있다. 어느 날 착한 노부부가 상처 입은 개를 데리고 와서 극진히 돌보아준다. 노부부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물이 묻혀있는 장소로 안내한다. 땅을 파보니 거기서는 보물이 나오게 착한 노부부는 부자가 된다.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강제로 이 개를 끌고 와 보물이 묻힌 곳을 다그치자 개는 보물 대신 뱀과 개구리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 격노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개를 죽이고 만다. 이를 가엾게 여긴 착한 노부부는 개의 사체를 잘 묻어주었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나무가 자라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개의 충성심과 보은에 관한 것으로서 선과 악을 대립시킨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교훈이다. 재물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도 있다. 작품 「2회」에서 쓰키마루와 하나세 부부가 자신들을 돌보아주는 주인집인 촌장댁을 번창하게 해주었다고 나온다. 개의 충직성과 보은을 말하고 있다.

이 마을 촌장의 집에 ‘쓰키마루와 하나세’라는 부부개가 살고 있다. 오랜 세월 주인과 주인집 사람들이 예뻐하며 정성 들여 길러 왔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우 충성스럽게 섬겨서 오랫동안 도둑이라는 것이 들어와 본 적이 없었고 집은 점점 번창하였다.

ここにこの里の莊官の家に、月丸花瀬とて雌雄の犬ありけり。年頃情を掛て飼ひけるほどに、よくその恩に感じてや、いとも忠実に事ふれば、年久しく盗人といふ者這入らず、家は増々榮えけり。(p.65)

예로부터 개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이다. 주인에게 일관된 충성을 하는 대표적 동물이다. 메이지시대 절대주의 천황제가 추구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충’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개로 등장시킨 것은 탁월한 소재였다고 할 수 있겠다.

16) 楠山正雄·編著(1996) 『むかしむかしあるところに』 童話屋

② 분카쿠(文角)

작품은 촌장택을 지키는 개인 하나세와 쓰키마루 이외에도 뒷마당 목장에 사는 황소와 암소가 나온다. 이 부부 소는 고가네의 부모와 친밀한 우정의 관계에 있다. 하나세가 유복자 고가네를 낳고 죽게 되자 분카쿠와 보탄 부부는 고가네를 거두어 보탄의 젖을 먹이며 외양간에서 양육한다. 그들을 친부모라고만 알고 성장했는데 양부모임이 밝혀진다. 「2회」에서 분카쿠로부터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가네는 당장 원수인 호랑이와 여우를 찾아내서 응징하겠다고 분노한다. 이때 분카쿠는 고가네를 진정시키며 상대가 힘센 호랑이에다 교활한 여우이므로 순간적인 기분으로 달려간다면 호랑이 먹이가 될 뿐이며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타이른다. 이런 행동은 ‘불나방보다 어리석은 일이다(火取虫より愚なる業なれ)’라고 일깨워 준다. 부모의 원통한 죽음을 들은 고가네는 힘을 길러서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수행 길에 오른다. 분카쿠는 고가네가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키우고 부모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사려 깊게 조언한다. 고가네가 수행 길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충고를 하는가 하면, 후일 위기에 처했을 때도 출현하여 고가네가 부모의 원수를 갚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분카쿠(文角)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문(文)’을 표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식견을 지닌 것이 분카쿠의 이미지다. 동서고금의 이야기에 해박한 사자나미는 『고가네마루』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이름에 정신적 특성과 동물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뿔을 지닌 황소(牡牛)의 특징을 살리고 그 안에 지혜를 표상하는 ‘문(文)’을 담았음을 알 수 있다. 분카쿠의 지혜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알아보자.

「12회」에서 고가네와 와시로(鷺郎)가 놓은 덫에 걸려 초스이가 잡힌다. 둘은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 초스이를 당겨 죽이려고 할 때 분카쿠가 나타나서 살려 줄 것을 권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수를 앞에 두고 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가네와 와시로는 의아해하였지만 분카쿠를 믿고 그의 계획을 경청한다. 분카쿠는 초스이를 통해 호랑이 긴보의 동태를 살피고 그와 그의 수하들의 요새를 알아내고, 그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방안을 모색한다. 분카쿠의 설득은 결국 초스이

를 악의 화신에서 회개하는 자로 변모시키고 고가네가 염원하던 부모의 원수를 갚는 매개체가 되어 성공으로 이끈다. 분카쿠를 통해 지혜와 참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다.

③ 초스이(聽水)

초스이는 이 작품이 전개되는 사건의 발단이 된 늙은 여우이다. 초스이가 호랑이 긴보를 부추겨 쓰키마루를 물어뜯어 죽인 것이다. 여우는 동아시아와 서구의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동양과 서양의 민담을 보면 여우는 간사스럽고 교활한 요물로 나온다. 이 작품에서도 여우 초스이는 교활하고 영악하게 나온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초스이는 식탐 때문에 밧에 걸리고 만다. 『고가네마루』「13회」에서 초스이가 죽기 전에 뉘우치며 성불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신은 “원래는 이나리다이묘진의 사신(原来爾は稻荷大明神の神使なれば)”¹⁷⁾이었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였을 때는 사람들의 공경을 받았는데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비뚤어진 삶을 살았다고 뉘우친다. 여우 초스이(聽水)의 이름은 매우 관념적이다. 신사의 사자답게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청아하게 살아야 할 존재임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본도에서 벗어나 악행을 일삼게 됨으로써 업보로 죽게 되었다. 초스이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 늦었지만 ‘신의 사자’답게 분카쿠의 올바른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여 마음을 바르게 고친 것이다.

초스이의 행동을 보면 호랑이를 앞세워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사자성어가 연상된다. 사자나미가 『고가네마루』를 집필할 때 괴테의 『여우 라이네케』¹⁸⁾를 참고로 하였다고 밝혔는데, 괴테가 그려낸 여우의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자. 괴테의 라이네케는 괴테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유럽 전역에 알려져 있던 동물설화에 등장한 여우의 특징을 살려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17) 일본에서 추수 후 먹을 것을 찾아 논밭을 헤매는 여우를 보고 농부들이 ‘농토를 지키는 신의 사자’ 또는 ‘끝까지 농사를 돌보는 신의 사자’로 인식하면서 해마다 오곡의 신 우카노미타마신(食稻魂神)에게 제사하는 ‘이나리(稻荷)’의 사자 또는 그 신체로 여기고 음력2월초 오일(午日)에 ‘이나리 마쓰리(稻荷祭)’라고 하여 사찰 뒤쪽에 있는 작은 여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무라카즈 시게요시·최길성역(1989)『일본의 종교』예진 pp.137-138

18) 요한 볼프강 폰 괴테·윤용호역(2010) 『괴테의 여우 라이네케』종문화사.

괴테 나이 44세인 1793년에 완성, 1794년에 출간했다. ‘여우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를 거치면서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로 조금씩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며 사랑을 받은 민중 시가이다. 이 작품은 괴테문학의 다른 면을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여우는 영악함이 극에 달하는 악랄한 동물로 그려져 있다. 보통 악행을 일삼은 후의 결과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가해지는 것이 마땅한데, 괴테는 통념을 깨고 다른 결말을 끌어냈다. 여우의 간교한 거짓말과 영악한 술책으로 오히려 사자왕 노벨을 피어 고문직을 맡은 곰과 늑대 등을 희생시키고 왕국에서 왕의 대변인 자리를 여우가 차지한다. 이러한 결말을 보면 괴테는 권선징악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왕국의 지배자인 사자를 비롯해 권력에 도취해 있는 동물들이 자신들의 우둔함과 탐욕 때문에 여우에게 당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다분히 당시의 세태와 위정자들의 위선과 기만을 반영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우의 표상은 영악하고 꾀가 많다는 것은 공통된다. 괴테와 사자나미가 그려낸 여우 역시 교활하고 영악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괴테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풍자하기 위해 여우를 활용하고 있다. 서열화된 동물의 왕국에서 여우는 자신의 악행으로 죽음 직전에 놓인 상황을 영악함과 지혜로 모면하고 오히려 왕을 설득함으로써 두터운 충애를 얻고 결국 왕을 대변하는 제국의 수상이 된다. 여우 라이네케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악함을 덕으로 승화시키고 존경받는 여우가 되며 이야기는 끝난다. 이에 반해 『고가네마루』에서 사자나미는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담고자 여우가 벌을 받도록 한다.

④ 긴보(金眸)

다음은 호랑이 긴보의 표상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에서는 설화나 옛날이야기에서 ‘호랑이’를 소재로 하는 이야기는 드물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호랑이는 일본에서 식하지 않았다고 한다.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는 한국 혹은 중국과 인도의 옛이야기 소재로 등장한다. 서양에서는 동물의 왕을 ‘사자’로 주로 표현하며, 동양에서는 동물의 왕을 ‘호랑이’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호랑이 이야기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하다. 중국의 대문호인 루쉰(魯迅)¹⁹⁾도 조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호랑이 이야기는 조선의 동물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19) 중국의 문학자, 사상가, 본명은 주수인(周樹人). 절강성의 지주·관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집안이 몰락하였다. 1902년에 일본에 유학하여 의학을 공부하다가 그 후 문학으로 전환하였다. 문필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0년부터이다. 『아큐정전』(阿Q正傳)으로 대표되는 그의 소설은 중국 근대문학의 기초를 이루었다.

차지한다. 최남선²⁰⁾은 “범 이야기 수요가 많기로 조선만 한 데가 없으려니와, 그것만 듣기 좋아하는 곳도 조선만 한 데가 있을 것인가. 인도나 그 외의 어떤 나라도 범 이야기 하나만으로 다 조선의 적이 아니다. 범 이야기만을 모아서 「천일야화」, 「태평광기」²¹⁾, 「데카메론」²²⁾등 이런 종류의 책을 엮을 나라는 세계가 넓다 해도 오직 조선이 있을 뿐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만큼 ‘호랑이 이야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사자나미는 『소년세계』를 통해서 한국 전래동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1901년 2월 1일 발표된 「조선 호랑이 가죽」이라는 작품을 통해 ‘조선하면 호랑이’라는 인식을 일본 어린이들에게 옛날이야기 형태로 재미있고 인상적으로 전한 것이다.²³⁾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고가네마루』의 호랑이는 한국의 옛날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국의 민간신앙에서의 호랑이 이미지는 단순한 동물이나 맹수의 이미지를 넘어 신적인 존재인 산신(山神)으로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호랑이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신성함을 두루 갖춘 상징적인 동물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외형적 이미지를 『고가네마루』 「1회」에서 사자나미는 긴보를 인상 깊게 묘사하는데 깊은 산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존재로 소개한다. 일반 동물들보다 거대한 몸집과 거울처럼 크고 투명한 황금 눈동자를 가져 이름이 긴보(金眸)라고 명명한다. 호랑이처럼 강한 대상을 제압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외형은 크고 강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작품에서는 여우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둔한 동물로 묘사된다. 게다가 ‘도모시(照射)’라는 애첩인 사슴을 향시 가까이 두는 향락적인 모습으로 그려낸다. 체격이 크다고 해서 지략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대적 할 수 있는 상대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서양과 일본의 관계를 암암리에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

20)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이끈 계몽 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다. 3.1운동 때 독립 선언서의 초안을 쓰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친일파로 돌아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1) 500권. 송나라 태종(太宗)의 칙명으로 977년에 편집되었다. 종교 관계의 이야기와 정통역사에 실리지 않은 기록 및 소설류를 모은 것으로, 당시의 유명한 학자 이방(李昉)을 필두로 하여 12명의 학자와 문인이 편집에 종사하였다. 475종의 고서에서 골라낸 이야기를 신선·여선(女仙)·도술·방사(方士) 등의 내용별로 9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22) 이탈리아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가 100편의 이야기를 모은 책으로 중세부터 전해 내려오던 역사적 사건과 설화, 민담 등에서 소재를 따온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23) 오다케 기요미(2008) 「이와야 사자나미(岩谷小波)와 근대 한국」 『한국아동문학연구』 (15)(도쿄 준신대학)p.151

⑤ 하나세(花瀬)·보탄(牡丹)·오코마(阿駒)·도모시(照射)

이 작품에는 네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하나세와 보탄 그리고 오코마는 전근대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져 있다. 자기 자신보다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를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의리를 굳게 지킨다. 하나세는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도 돕지 못하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뱃속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오코마는 자신을 고양이로부터 구해주고 남편의 원수를 갚아준 고가네 일행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집안 일 등을 도우며 주군으로 모신다. 거사를 위해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 하나세와 오코마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 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뒤를 따른다.

메이지시대가 요청하는 정신 안에는 신민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들어있는데 자신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초개와 같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으로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숭고한 행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남성의 역할이 전면에서 나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라면, 여성은 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오코마(阿駒)의 이름은 일본의 고전 게임 중 하나인 장기(將棋)에서 상대의 장군을 막기 위하여 상대 말의 길목에 자기 말을 두어 장군을 막는 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작품에서 오코마의 역할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모시의 경우는 위의 셋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작품 「11회」와 「12회」에 나오는 도모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긴보는 때마침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도모시라고 하는 애첩 사슴을 곁으로 불러 주연에 빠져있었다. (중략) 이윽고 흠뻑 술에 취해버려 [곁에 있던 긴보의 짝] 도모시의 무릎을 베개 삼아 세상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아주 크게 코를 골았고 그 소리는 잠시 후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金眸は折しも最愛の、照射といへる侍妾の鹿を、辺近くまねき寄て、酒宴に余念なかりけるが。(中略)

やがて酔も十二分にまはりけん、照射が膝を枕にして、前後も知らず高鼾、霎時は罌に響きけり。

(pp.96-98)

위의 글에서 호랑이의 애첩으로 사슴 도모시가 등장한다. 체격이 큰 호랑이와

가날픈 사슴이 대비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런 설정은 설화나 민담 등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도모시의 이름에서 ‘빛을 받하다’는 이미지와 화려함을 연상하게 된다. 논자는 그 표상을 1880년에 만들어진 사교장인 로쿠메이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메이지 정부는 개화기에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외국사절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 접대소로 로쿠메이칸(鹿鳴館)²⁴⁾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로쿠메이칸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사슴이 우는 전당’이다. 건물 꼭대기 정면에 로쿠메이칸(鹿鳴館)이라는 세 글자가 가스등 불빛을 받아 환히 빛나고 건물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고 한다. ‘로쿠메이칸 외교’를 전개하여 무도회를 여는 장소로 이용하여 수많은 내외 고관(高官)과 서양의 옷차림을 한 부인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연회를 열어 즐겼다. 문명개화의 상징적인 분위기이다. 서구화된 모습을 서구열강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일본을 동등한 상대로 여기도록 유도하여 불평등조약에서 맺은 외국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을 압박하였던 서구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연회장인 로쿠메이칸의 이미지를 도모시를 통해 연상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자나미는 등장인물의 표상을 통해서 메이지의 시대 상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동서양고전의 다양한 심상

사자나미는 『고가네마루』를 집필하면서 참고로 하였던 책들에 대해 범례(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자는 이 『고가네마루』를 편찬할 때, 괴테의 ‘Reineke Fuchs(여우의 재판)’과 이외에도 그림²⁵⁾, 안데르센 등의 Maerchen(기이담), 또한 우리 일본의 ‘모모타로(桃太郎)’, ‘가치가치산(かちかち山)’을 비롯하여, 고전 ‘곤자쿠이야기(今昔物語)’, ‘우지슈이’등에서, 덴메이(天明)²⁶⁾시대의 기보시²⁷⁾ 등 다양한 것을 생각해 내서, 초안을 만드는데 참고로 했다. 하지만 인용 자료

24) 영국 건축가가 지은 로쿠메이칸의 외부는 높은 빅토리아 양식으로 프랑스 제국,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복합적인 형태로 지었다. 1880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1883년 11월28일에 개관하였다. 이안 부루마·최은봉역(2005) 『근대일본』을유문화사 pp.50-51

25) [Jacob G.] (1785-1863) 독일의 언어학자·문헌학자·문학자. "독일 문법"으로 후의 게르만 언어의 토대를 마련 동생 빌헬름 함께 "독일어 사전" "그림 동화"을 편집했다

26) 이 시대 천황은 고가쿠천황(光格天皇(1771-1840))이며 1781년-1789년의 기간을 지칭한다.

로서 이름을 기록할 정도는 아니다.

作者この『こがね丸』を編むに当りて、彼のゲーテの Reineke Fuchs(狐の裁判)その他グリム、アンデルセン等のMaerchen(奇異談)また我邦には桃太郎かちかち山を初めとし、古きは『今昔物語』、『宇治拾遺』などより、天明ぶりの黄表紙類など、種々思ひ出して、立案の助けとなせしが。されば引用書として、名記するほどにもあらず。(p.60)

위의 범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양을 비롯하여 일본의 고전까지 아우르는 많은 이야기가 하나의 작품 안에 담겨있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의 후속편을 보는 듯한 재미를 느꼈을 것이다. 작품 『고가네마루』는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행동과 내면까지 분석해 설명해주어 인물들의 감정이 세밀하게 서술될 수 있어서 흥미를 더했다고 생각된다.

① 도가쿠시(戸隠) 전설

「4회」에서 고가네가 주인집을 나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 쓰키마루의 영혼이라고 여겨지는 불빛을 따라가다 당도한 곳에서의 상황묘사를 전설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다음과 같다.

그곳은 아주 오래된 황폐한 절이었다. 지금은 사는 이가 아무도 없는 모양새다. 마루는 내려앉았고 기둥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벽은 깨지고 금이 가 있었고, 그 벽을 타고 덩굴이 뒤엉켜 있고 씩어버린 처마에는 거미줄이 망처럼 붙어 있었다. 그곳은 오싹하리만치 황폐해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의 끝자락, 지붕에서 싹터 자란 단풍나무가 절정을 이루어 빨갭게 물들어 있었다. 그 단풍잎들 사이로 기울어져 있는 도깨비 무늬의 와당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고가네마루는] 도가쿠시의 옛 전설을 떠올렸다. 참역새가 높고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가운데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돌부처가 보인다. 그 모습은 경전에 나오는 설산동자의 이야기를 회상하게 한다.

こは大なる古刹にして、今は住む人もなきにや、床は落ち柱斜めに、破れたる壁は蔓蘿に縫はれ、朽ちたる軒は蜘蛛の網に張られて、物凄きまでに荒れたるが。折しも秋の末なれば、屋根に生ひたる芽生の楓、時を得顔に色付きたる、その隙より、鬼瓦の傾きて見ゆるなんぞ、戸隠し山の故事も思はれ。尾花丈高く生茂れる中に、斜めにたてる石仏は、雪山に悩む釈迦仏かと恐ばる。(p.73)

27) 구사조시(草双紙)의 일종으로 표지가 황색이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 보통 5장을 한 권으로 한 그림이 있는 통속소설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도가쿠시(戸隠)전설’이 나온다. 이것은 도가쿠시의 아라쿠라산(荒倉山)에 ‘모미지(紅葉)’라는 귀녀가 산속 바위굴에 거처를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요술을 부리며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고레모치(維茂)²⁸⁾라는 장수와 대결한다. 고레모치는 관음(觀音)으로부터 받은 검으로 갖은 술수를 부리는 모미지를 상대로 싸우다 옥원(奧院)²⁹⁾에서 황금빛이 나와 모미지를 비추었고 귀녀의 양쪽 눈이 실명하게 되어 고레모치의 검으로 모미지를 처단하는 이야기다. 단풍으로 둘러싸인 폐허가 된 절을 보면서 유명한 ‘모미지 귀녀 전설’을 상기시켰고, 황폐한 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에도시대까지 변창했던 불교가 메이지시대에 와서 그 부흥이 쇠퇴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에도시대의 불교는 국교(国教)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승려들의 세력이 막강해 일반 민중들이 억압을 받았다. 따라서 승려들에 대한 불만 또한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시기에 메이지정부는 제정일치를 정치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불교를 배척하고 신도를 새로운 국교로 만들려고 했다. 1868년 3월, 태정관(太政官)은 신불판연령(神仏判然令)을 내리고 신사로부터 불교적 색채를 떼어내어 전국의 신사를 직접 국가 지배하에 두고 중앙집권적으로 재편성을 했다. 그리고 1871년에는 대교선포(大教宣布)의 소를 내려 천황을 최고 위에 두고, 신도(神道)가 대교(大教)의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포교 되었다. 이리하여 신도는 국교가 되었다. 이러한 신불분리(神仏分離)원칙에 의해 그동안 불교 승려들에게 차별을 받던 일반 민중들도 불교를 없애고 부처를 훼손하는 운동을 하여 절을 파괴하고 불상과 경전, 불구 등을 태워버렸다. 하지만 불교가 기울어지자 이 틈을 기독교가 비집고 들어오려 하자 메이지정부는 다시 불교를 신도의 종속으로 협력할 것을 권유해 불교계에서 이를 받아들여 불교 훼손도 멈추게 되었다³⁰⁾. 이 상황을 안타까워한다는 의미로 바로 이어서 설산동자³¹⁾의 고뇌하는 모습을 그렸다. 황폐한 옛 절을 소재

28) 헤이안(平安)시대의 장수이기도 하며 노(能)에서 단풍놀이(紅葉狩)의 옛말이 고레모치이다.

29) 도가쿠시신사(戸隠神社)에 있는 대표적 5사인 옥사(奥社)·중사(中社)·보광사(宝光社)·구두용사(九頭竜社)·화지어자사(火之御子社)의 하나로 옥사의 옛 표현이 옥원(奧院)이다. 창건 이래 2000년 남짓의 역사를 지닌 신사이다.

30) 윤광봉(2009) 『일본 신도와 가구라』태학사 pp.33-34

31) 설산동자(雪山童子) : 『열반경(大般涅槃經)』에 있는 석가모니(釈迦牟尼) 전생의 모습. 『열반경』에는 불신상주(仏身常住:깨우침을 얻은 부처의 신체는 법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실유불성(悉有仏性: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이라고 강조한다.

로 삼고 옛 전설로 엮어 시대상을 섬세한 필치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② 시시(獅子)이야기

작품 「10회」에서 고쿠에가 고가네를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초스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가네마루는 나뿐만 아니라 황궁하옵게도 대왕까지 적으로 보고 노리고 있지. 그가 다친 발을 회복한 후에는 이 산으로 침입하여 대왕을 물리칠 거야. 그 유명한 시시(하다도키요시가 키우던 강아지이름)처럼 용맹하고 지혜가 있긴 하나 나의 대왕에게 덤비는 것은 축견과도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할 뿐이야 ”

「原来彼の黄金丸は、われのみならず畏くも、大王までを仇敵と狙ふて、他が足痲愈なば、この山に討入て、大王を噬み斃さんと計る由。……怎麼に他獅子(畑時能が飼ひし犬の名)の智勇ありとも、わが大王に牙向はんこと蜀犬の日を吠ゆる、愚を極めし業なれども」(p.95)

위에서 『태평기(太平記)』에 나오는 개 ‘시시(獅子)’의 예를 들며 고가네와 닮았다고 한다. 시시는 남북조시대의 무장인 하다 도키요시(畑時能)³²⁾의 군용견으로 적진에 들어가 동태를 살핀 아주 뛰어난 신통력이 있는 개였다. 하다 도키요시는 전장에서 시시를 군용견으로 이용한 최초의 장수로서 유명하다. 시시는 야간에 성을 나와 적군의 진영에 잠입하여 경비가 삼엄하면 한번 짖고 적들이 자고 있으면 꼬리를 흔들며 신호를 보내 야간습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작품에서 초스이는 고가네를 시시처럼 지략과 용맹을 갖춘 인물로 표현하면서도 호랑이 긴보 대왕에게 덤비는 행위는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축견(蜀犬)과 같다고 한다. 중국 축나라(현, 사천성)는 아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안개와 구름이 항상 뒤덮고 있어 태양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곳이었다. 그러다 어쩌다 태양을 보게 되면 축나라의 개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짖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축견吠일(蜀犬吠日)이며 ‘무지한 탓에 당연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지식이 낮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의 언행을 보고 비난한다’는 비유의 말이 되었다. 이는 비정상적인 인물이 정상적인 인물을 헐뜯는 것으로 초

32) 『태평기(太平記)』 「22권」의 「하다로쿠로우자에몬(畑六郎左衛門)」에 나오는 남북조시대의 무장이다.

스이는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함으로 독자들에게 재미를 가중시켰다. 책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는 악의 표상인 초스이가 고가네를 인정하고 축견은 결국 초스이가 되는 것이다. 이중적 묘사로 결말도 암시하고 고가네의 용맹도 말하기 위해 태평기의 개에 얽힌 일화를 삽입하고 있다.

③ 향아(嫦娥)전설

사자나미는 한·중·일에서 같은 소재로 많이 회자된 전설을 고가네마루에 담고 있다. 토끼와 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화로 전해지고 있으나 작품에서 전하는 것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월궁전³³⁾의 향아전설이다. 다음은 「8회」에 나오는 고가네가 약을 구하러 토끼를 찾아갔을 때 토끼영감이 약을 발라주며 이렇게 말한다.

“내 이 약은 황송하게도 월궁전의 향아가 손수 전수해 주신 영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설령 어떤 불치병이라고 하여도 즉시 낫게 해주는 신통한 약이다.”

「わがこの薬は、畏くも月宮殿の嫦娥、親ら伝授したまひし靈法なれば、縦令怎麼なる難症なりとも、とみに癒ること神の如し。」(p.85)

토끼 아카메는 월궁전에서 영력이 있는 절구와 맷돌을 하사받아 그것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만들어 갖가지 병으로 아파하는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로 등장한다.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아래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찧는 토끼가 달 속에 있다고 상상하였으며, 토끼처럼 천년만년 풍요롭게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이상세계를 꿈꾸며 토끼를 장수의 상징이나 달의 정령으로 인식해왔다. 토끼 아카메는 월궁전의 향아에게서 불사의 약을 만드는 영법도 전수받았다고 말한다. 향아는 중국 고전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전설적인 궁수이자 서왕모(西王母)에게 불사의 과일을 받았던 예(羿)의 아내이다. 천도복숭아로 알고 있는 중국 신화상 불사의 과일은 서왕모가 관장하는 것으로 3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이 불사의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었다. 욕심이 많았던 향아는

33) 전설에서 달 속에 있다는 궁전이다.

남편의 천도복숭아를 모두 훔쳐먹고 불사의 몸이 되어 달로 도망쳤다고 전해진다.³⁴⁾ 사자나미는 독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달과 토끼 이야기에 항아 전설도 결합하여 아카메를 통해 신통력의 내력을 말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각색되고 있다.

④ 『예기』의 불구대천지수

고가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여우 초스이에 대해 “불구대천의 원수(俱不戴天之仇)”(p.79)(p.87)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말은 불구대천지수(不俱戴天之讐)·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讐)라고도 한다. 또 준말로 대천지수(戴天之讐)·불공대천(不共戴天)이라고도 한다. 『예기(禮記)』³⁵⁾『곡례편(曲禮篇)』에 나오는 말이며, 『맹자(孟子)』「진심편(尽心篇)」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이 나온다. 한 하늘을 같이 하지 못할 원수라는 뜻의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의 큰 원한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원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날 이 말은 아버지의 원수에 한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운 놈’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불구대천지수’라는 고사성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견원지간’이다. 작품에서 “우리가 원숭이와는 옛날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사이지만”³⁶⁾ 와 같이 원숭이와 개의 사이가 서로 미워하는 사이임을 말하고 있다. 이 고사성어도 중국의 『서유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아버지나 스승 또는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하는 행위를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왔다. 이것은 후일 청일 러일·태평양전쟁에서 상대국을 원수로 취급하고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이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였다.

4. 작품 속에 투영된 시대정신

34) 이어령 편집(2010) 『十二支神 토끼 - 한중일 비교문화시리즈-』생각의 나무 pp.47-60 참조

35) 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 49편으로 이루어졌다. 오경(五經)의 하나로, 『주례(周禮)』『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한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禮)에 관한 경전을 보완(補充)·주석(註釋)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때로는『의례』가 예의 경문(經文)이라면 『예기』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되기도 했다.

36) 「われら猿とは古代より、仲悪しきもの讐に呼ばれて、互いに牙を鳴らし合ふ身なれど」 p.88

1) 군인칙유(軍人勅諭)

동화 『고가네마루(こがね丸)』안에는 메이지 신정부가 추구한 특수한 시대정신이 들어있다. 유신에 성공한 신정부는 서양의 다양한 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이기에는 급급했다. 그 안에는 서구의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사상도 있었다. 하지만 신정부는 정치적인 면에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와 같은 서구의 근대사상은 국가를 통합하는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대신 메이지 신정부는 ‘군인칙유(1882)’와 ‘교육칙어(1890)’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국민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 그 동안 번(藩)으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의 나라 안에 뭉치게 하고 국민국가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메이지 일본 근대국가가 지닌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군인칙유’는 1882년 1월 4일에 발표되었고 정식명칭은 ‘육해군 군인에게 내리신 칙유(陸海軍軍人に賜はりたる勅諭)’이다. 그 첫머리에 “우리나라의 군대는 대대로 천황의 통솔 아래에 있다”³⁷⁾고 나온다. 이러한 선언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천황에 의한 군인 교육은 비교적 일찍 시작되는데 1872년에 천황이 직접 호령하며 군대를 지휘하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시종들을 병사로 삼아 연습했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근위병 1소대를 상대로 지휘훈련을 하였고, 1873년에는 근위병을 이끌고 야영연습을 하였다. 천황도 비바람을 참고 야영을 하고 다음 날은 대향연습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리하여 점차 군대를 통솔하는 능력을 지닌 천황이라는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천황의 활동에는 일본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사도 정신의 행동규범이 들어있다. 일본 역사에서 무사 정권과 천황 간에는 서로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균형 관계를 유지해왔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무사 정권의 사고와 행동 양식은 일본국민에게 침투되어 일본인 전체의 행동규범으로서 작용하고 있었기에 메이지기의 군인칙유는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를 지배한 무사도 정신은 유교적 충효 사상이 근간이 되어 주군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 이 주군에 대한 충성은 메이지 천황제와 결합 되어 천황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

37)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소·형진의 외역(2017) 『국체의 본의』어문학사 p.151

대적인 충성으로 변모되는데 이를 군인칙유에 도입시켰다. 그리하여 ‘군인칙유’는 천황의 군대로서 지켜야 할 사상이 되었다.³⁸⁾ 칙유의 내용으로 맨 처음은 “군인은 충절(忠節)을 다하는 것을 본분으로 해야 한다. 국가를 방위하고 국권을 유지하는 것은 병력에 의하므로 병력의 강약은 곧 국운의 성쇠임을 깨달으라. 여론에 현혹되지 말고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저 한결같이 자신의 본분인 충절을 지키고 의무는 산보다 무겁고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고 각오하라”³⁹⁾고 명시되어 있다. 흠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애국심을 고조하는 부국강병을 강조하며 오로지 나라를 위한 길임을 내세워 천황에 대한 강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를 필두로 배신할 수 없는 도덕적 윤리를 나열하였다. 군인칙유의 충절에 관한 내용의 나머지는 예의(禮儀)·무용(武勇)·신의(信義)·질소(質素) 다섯 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무사도 정신을 정리하여 완성한 군인의 행동지침서였다.

원래는 군인에게 하달한 명령이지만, 당시의 중학교나 청년기의 학생들에게도 가르쳤다는 점으로 보아 군인만이 아닌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했음을 말해준다. 군인칙유의 내용은 『하가쿠레(葉隱)』⁴⁰⁾에서 중요하게 다룬 사상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무사의 언행과 마음가짐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주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며 할복과 같은 죽음의 형태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옳은 선택이며, 죽음을 회피하는 행동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한 수치라고 규정하였다.

근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존중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군인칙유의 내용 중 “충을 위해 개인의 목숨은 깃털처럼 가벼워야 한다”는 것은 『하가쿠레』의 내용과 겹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하가쿠레』의 첫 대목이다.

무사도란 죽을 때를 발견하는 것이다. [생(生)과 사(死)의]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38) 양영민(2013) 『사무라이 침략근성과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 좋은땅 pp.256-265 참조

39)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형진의 외역(2017) 『국체의 본의』 어문학사 p.212

40) 三島由紀夫編(1978) 『葉隱入門』 光文社 (에도시대 사가번(佐賀藩) 번사(藩士)였던 야마모토 쓰네토모(1659-1719)가 무사가 갖추어야 할 언행과 마음가짐에 대해 논했는데 그의 담화를 미시마 유키오가 정리한 책) 니토베 이나조의 『武士道 Busido』는 『하가쿠레』를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다.

한다면 죽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고민할 필요 없이 나아가면 된다.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은 개죽음이다.” 주군을 향하는 마음은 무사 본연의 자세이다. (중략) 매일 아침저녁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은] 진정 무사가 되는 것이며 한평생 부끄럽지 않게 무사의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武士道といふは、死ぬ事と見付けたり。二つ二つの場にて、早く死ぬほうに片付くばかりなり。

別に仔細なし。胸すわって進むなり。図に当らぬは犬死などといふ事は、上方風の打ち上がりたるなるべし。

(中略) 毎朝毎夕、改めては死に改めては死に、常住死身になりて居る時は、武道に自由を得、一生越度なく、家職を仕果すべきなり。(『葉隠入門』p.178)

위의 『하가쿠레』내용은 『고가네마루』「2회」에서 죽음을 앞둔 고가네의 어머니 하나세(花瀬)의 입을 통해 그대로 말해지고 있다.

남편이 비명횡사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지조도 없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짐승의 몸이지만 쓰키마루의 아내 된 몸으로 이 몸이 죽더라도 남편을 위협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로, 도리를 아는 짐승의 본분이기 때문에 아내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때 목숨을 아낀 것은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곳에 나가 호랑이와 싸웠다면 남편과 함께 죽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누가 원수를 갚아줄까요. 마침내 부모 자식 셋 다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지조를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지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죽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참고 참으며 간신히 견디면서 [눈앞에서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기만 한 것입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이 아이를 낳는 것이야말로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雄が横死を見ながらに、これを救けんともせざりしは、見下げ果てたる不貞の犬よと、思ひし獣もありつらんが。元より犬の雌たる身の、たとひその身は亡ぶとも、雄が危急を救ふべきは、いふまでもなき事にして、義を知る獣の本分なれば、妾とて心付かぬにはあらねど、彼時命を惜みしは、妾が常ならぬ身なればなり。もし妾も彼処に出でて、虎と争ひたらんには。雄と共に殺されてん。さる時は誰か仇をば討つべきぞ。結句は親子三四して、命を捨るに異ならねば、これ貞に似て貞にあらず、眞の犬死とはこの事なり。かくと心に思ひしかば、忍びがたき処を忍び、堪えがたきを漸く堪えて、見在雄を殺せしが。これも偏へに胎の児を、産み落したるその上にて。仇を討たせんと思へばなり。(pp.67-68)

위에서 보듯이 고가네의 어머니 하나세는 남편 쓰키마루(月丸)가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나서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내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수치스러워한다. 그러나 자식을 잉태하고 있어 죽을 수 없어서 때를 기다렸다고 말

한다. 이 대목은 남편에 대한 신의의 중요함이 부각 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남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함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자식을 잉태한 여성은 생각이 깊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모가 됨으로써 남편에게 신의를 보이는 것이 된다. 이는 메이지시대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메이지시대는 수많은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용맹한 군인이 양성되어야만 했다. 여성들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이 본분임을 교육하였다. 나라를 위한 인재로 자식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여성의 본분이었다. 특히 아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위의 하나세의 언행에서 메이지시대가 필요로 한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세가 말하는 죽음은 무사도가 지향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사람은 즉각적인 분노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죽음을 택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고 사려 깊게 판단을 해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에 죽어야 한다는 죽음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고가네마루』 「9회」에서 쥐 오코마(阿駒)가 자신을 구해준 고가네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보은(報恩)을 하겠다는 결기를 다지면서 하는 말이다.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오늘까지 버텨왔지만 (중략) 언젠가는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 생명을 바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뿐. 이렇게 해서 오늘밤 공교롭게도 주군님들의 이야기를 미닫이문틀 위에서 몰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정말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와서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生きて甲斐なきわが身をば、かく存命へて今日までも、(中略) 早晚かは君の御爲に、この命を進らせんと、思ふ心のあればのみ。かくて今宵罔らずも、殿たち二匹の物語を、鴨居の上にて洩れ聞きつ。さても嬉しや今宵こそ、御恩に報ゆる時來れと、心私かに喜ぶものから。(p.91)

오코마는 자신을 연모한 고양이 우바타마(烏円)에게 쫓기던 중 고가네 일행에게 구조된다. 그러면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살게 된다. 고가네 일행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오코마는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위해 열심히 집안일과 시중을 들면서 지낸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고가네가 부모와 주군의 원수 갚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엿듣게 되고는 자신이 희생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오코마는 남편을 죽인 원수를 처단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신의를 보이며 주군과도 같은 고가네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하고 이것이 명예로운 ‘충’임을 시사하였다.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느낀 오코마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가네가 여우 초스이(聽水)를 잡기 위한 미끼가 된다. 일본 무사도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저술 『하가쿠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날마다 묵상해야만 한다. 매일 아침 심신을 진정시키고 활, 창, 창, 칼등으로 잘리고 찢기고, 큰 파도에 휩쓸리고, 큰불 속으로 뛰어들고, 벼락을 맞고, 대지진에 직면하고, 수천 길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도, 아파 죽거나 급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죽음을 상상하면서 나태해지지 않게 매일 아침 죽어두는 것이다.

必死の觀念、一日仕切りなるべし。毎朝見心をしづめ、弓、鉄砲、鎗、太刀先にて、すたすたになり、大浪に打ち取られ、大火の中に飛び入り、雷電に打ちひしがれ、大地震にてゆりこまれ、数千丈のほきに飛び込み、病死、頓死等の死期の心を觀念し、朝毎に、懈怠なく死して置くべし。(『葉隠入門』pp.285-286)

『하가쿠레』는 주군에 대한 충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므로 일상에서 심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평소에 죽을 각오를 다져놓아야 정작 죽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명예롭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칙유에서도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에 보답해야 하고, 군인은 충절을 다하는 것을 본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봉건시대에 주군을 향했던 충은 메이지시대에 천황을 향한 충으로 바뀌었을 뿐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가쿠레』는 군인칙유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주군에 대한 충성은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으로 치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가네마루』에서 보여준 오코마의 행동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그 시기가 왔을 때 미련 없이 목숨을 바치는 무사도 정신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무사도는 가장 필요할 때 죽는 의미 있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죽음이 주군을 위한 죽음일 때 가장 명예로운 것이다. “때를 기다리며 항시 마음속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메이지 절대 천황제하에서 천황의 명령으로 수행되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지 신정부는 천황을 신격화하고 도덕의 화신으로 앞세워 근대국가를 만들어나갔

다. 반면 서구는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사회를 이루어서 근대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일본의 근대국가 만들기는 메이지 절대 천황제하에서 천황에 대해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며 개인의 생명은 하찮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시대에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⁴¹⁾가 재조명을 받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가마쿠라시대 말부터 남북조시대에 걸쳐 활약한 무장이다. 그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⁴²⁾을 자신의 깃말에 새기고 다녔다고 한다.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와의 전쟁⁴³⁾에서 패하며 자결하였다.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자신이 모신 천황을 위해 영웅적인 패배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의 사랑을 더 받았다. 전쟁에서의 승패보다도 자신이 섬기던 천황을 위해 자결한 충성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된 것이다. 이 일화는 메이지 시대 절대 천황제 사상을 국민에게 주입하기 위한 좋은 본보기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義)’가 수반되어야 한다. ‘의’ 즉 ‘의리’가 바탕이 될 때 온전한 충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가쿠레』는 ‘의리가 없는 자는 철면피다’⁴⁴⁾고 말한다.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들이 잘 쓰는 말로 ‘의리처럼 쓰라린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의리를 일본 특유의 민족성으로 보았다. 루스 베네딕트는 의리에 대하여 중국이나 유교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며 동양의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본 특유의 범주로서, 의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본인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⁴⁵⁾고 한다. 무사도 정신에서도 충의 이념을 기본으로 예의·의리·용기 등을 덕목으로 내세웠고 이 중에서도 의리는 무사도 정신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덕목이다. 무사는 일상에서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혐오하

41)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1294-1336)는 가마쿠라시대 말기에 고다이오 천황(後醍醐天皇)을 도와 가마쿠라막부를 멸망시키는 공을 세운 무장이다. 메이지시대에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으로 재조명된다.

42)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비리는 이론을 못 당하고 이론은 법에 못 당하고 법은 권세에, 권세는 천황을 당하지 못한다. (無理(非)は道理(理)に劣位し、道理は法式(法)に劣位し、法式は權威(權)に劣位し、權威は天道(天)に劣位する)

43)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승리로 고다이오천황(後醍醐天皇:96대)의 건무정권(建武政權)이 붕괴하고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가 성립한 전쟁을 말한다.

고토 야스시외·이남희역(2006) 『천황의 나라 일본』예문서원 pp.69-105 참조

44) 義理なき者はすくたれなり。p.206

45) 루스 베네딕트·김윤석역(2013)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p.175

였고 의리를 중시하였다. 군인척유에서도 재능이나 학문이 제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신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의리를 잘 지키므로써 주군과 무사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천황과 신민의 관계는 순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가네마루』에서도 ‘의리’를 강조하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리는 바르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강조한다. 「3회」에서 고가네는 양부인 분카쿠로부터 자신의 출생과 친부모가 죽음에 이른 경위에 대해 듣고는 놀란다. 그리고 분카쿠에게 “이런 의리를 지키는 관계인지 모르고 진짜 부모로만 알고 지내온 무례를 용서해달라”⁴⁶⁾고 사죄하고 감사를 표한다. 분카쿠 부부는 하나세의 유언을 굳게 지키고 고가네가 성장하여 철이 들 무렵 진상을 알려준 것이다. 이는 의리를 지키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6회」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독한 수행 길을 떠난 고가네가 우연히 여우 초스이를 발견했을 때 보인 행동이다. 그러나 고가네는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처신한다.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의 원수를 만나다니] 하늘의 은혜인가! [고가네마루는 흥분하여] 한 입에 확...”하고 생각하였지만, 역시 의를 아는 몸으로 잠자고 있는 적을 물어버린다는 것은 비겁한 일. 혹여 [초스이가 아닌] 다른 여우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며 무익한 살생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此處にて逢ひしは天の恵みなり。將一噬みに……」ト思ひしが。有繫義を知る獸なれば、眠込みを噬まんは快からず。かつは誤りて他の狐ならんには、無益の殺生なりと思ひ。(pp.78-79)

위 인용에서 고가네가 발견한 것은 잠자고 있는 초스이다. 그 모습을 보고 불구대천의 원수이기는 하나 잘못하여 엉뚱한 동물을 죽일 수도 있기에 신중함을 보이며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 게다가 설령 원수라고 하더라도 잠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적을 친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비겁을 수치로 여기는 무사도 정신은 원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무사도 정신에 입각한 여러 덕목이 『고가네 마루』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의리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은 루스 베네딕트가 민족성이라고 말

46) 「かかる義理ある中なりとは、今日まで露知ず、眞の父君母君と思ひて、我儘氣儘に過したる、無禮の罪は幾重にも、許したまへ」pp.70-71

할 만큼 일본인의 무의식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4회」에서 초스이는 고가네와 와시로(鶯郎)앞에서 과거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 그 뉘우침의 징표로 초스이는 호랑이 긴보(金眸)의 거처인 동굴로 가는 지름길과 긴보 주변의 경비 상황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스이는 그동안의 업보를 소멸시키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다. 뉘우쳤다고 해서 고가네가 초스이의 목숨을 구해주지는 않는다. 이 대목은 어린 독자들이 읽었을 때 사람은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절도를 잃지 않는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 것으로 보인다.

와시로는 초스이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악에 강한 것은 또한 선에도 강하다고 한다. 너는 지금 과거에 행한 너의 악행을 후회하고 우리를 위하여 긴보를 습격하는 계략을 가르쳐주는 충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너의 호의를 중히 여겨 너를 궁지에 빠뜨린 그 고쿠에를 쳐서 너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겠다. 마음을 편히 하여 성불을 하여라” “그것은 참 고마운 명입니다. 이렇게 지체할 것 없이 빨리 내 목을 물어 주십시오”라고 했다. 한번 각오하면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여우의 본성이다. 이를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고가네마루는 어금니를 뒤로 젖히고 이윽고 초스이의 목을 물어 끊었다.

鶯郎聞きて感嘆なし、「げにや悪に強きものは、また善にも強しといふ。爾今前非を悔いて、吾曹がために討入りの、計策を教ふこと忠なり。さればわれその厚意に愛で、おつつけ彼の黒衣とやらんを討て、爾がために恨を雪がん。心安く成仏せよ」「こは有難き御命かな。かくては思ひ置くこともなし、疾くわが咽喉を噬みたまへ」ト。覚悟極むればなかなか、些も騒がぬ狐が本性。天晴なりと称へつつ、黄金丸は牙を反らし、やがて咽喉をぞ噬み切りける。(p.108)

커다란 뉘우침을 통해 성불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불교적 사상에 ‘악에 강한 것은 선에도 강하다’는 일본의 속담을 엮었다. 일본인은 오랜 기간 불교적 신앙을 토대로 살아왔다. 한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으로 ‘최후의 염불 한 마디’라는 불교적인 공덕⁴⁷⁾을 말하였다. 이는 모래알만큼 작은 선행일지라도 행하고 불교에 귀의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는 일본인의 생활 저변에 있는 불교 신앙이 많이 보인다. 이 정신은 『하가쿠레』에서도 똑같이 언급한다. “부끄러움을 뉘우친다는 것은 그릇에 담긴 물을 뒤집어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바로 회개하면 물이 맑아지듯 죄 끝도 사라져가는 것이다”⁴⁸⁾라고 한

47) 불교적 공덕의 종류로는 범회·염불·독경·추선·방생 등이 있다.

다. 초스이는 죽음을 앞두고 의리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고가네와 와시로를 감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의연하게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 장면은 무사가 죽음에 초연하듯이 비장하게 표현되고 있다. 고가네 일행은 비록 초스이를 죽여야만 했으나 그를 배신한 원숭이를 처단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킨다. 다음은 「15회」에서 와시로가 고쿠에(黒衣)를 만나 말하는 대목이다.

“내가 저 녀석을 처단해야겠어, 조금 전 초스이와 약속을 했어.” (중략) 와시로는 고쿠에의 목을 물어뜯고 [개전의 제물인양] 기뻐하며 이것을 입에 물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われまづ往きて他を噬まん。さきに聴水とも約したれば」(中略)驚郎は黒衣が首級を咬ひ断離り、血祭よしと喜びて、これを口に提げつつ、なほ奥深く辿り行くに。(p.109-110)

위의 와시로의 행동은 초스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의를 실천하고 있다. 인간은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신의이다. 고가네에게 초스이는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이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감동하여 자신들도 닮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무사도의 덕목들은 메이지시대에 재조명되어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침으로 활용되었다고 본다.

2) 교육칙어(教育勅語)

군인칙유 다음으로 중요한 장치는 ‘교육칙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칙어는 일본의 성전(聖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스 베네딕트에 의하면, 일본은 어떤 종교에도 경전을 용인하지 않았고 신도에는 경전이 아예 없고, 일본 불교의 여러 종파도 ‘나무아미타불’이나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문구를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교육칙어는 학교에서 천황의 초상화를 내걸어 그 앞에서 모두가 머리 숙여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학교교장이 봉독을 한 후 봉답가를 모두가 부르는 의례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학교 밖의 다른 조직이나 행사에서도 ‘교육칙어’를 봉독하였다.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는 청중 앞에서 신성한 의식으로 봉

48) 야마모토 쓰네토모·이강희 역(2013) 『하카쿠레』사과나무 p.91

독하였으며 봉독 때마다 봉안소에서 꺼냈다가 청중이 해산한 뒤에 다시 정중히 봉안소에 넣었다. 봉독하는 임무를 맡은 이가 혹여 잘못 읽기라도 하면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하였다.⁴⁹⁾ 미성숙 단계인 아동에게 학교 교육이란 최고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의식교육과 반복된 의례를 통해서 천황은 위엄을 갖춘 상징이 되어갔다. 교육을 통한 천황제 확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0일 근대일본의 ‘교육기본방침’으로서 발표되었다. 천황제국가의 사상, 교육의 기본이념을 명시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교육에 관한 칙어(教育ニ關スル勅語)’이다. 교학성지의 기초(1879)나 교학강요의 반포(1882)등 자유민권운동과 문부성의 구화정책(歐化政策)에 반대하는 천황측근세력이 전통주의적, 유교주의적 입장에서 1890년 2월의 지방장관회의가 내각에 대하여 덕육 원칙의 확립을 원하는 건의를 한 것이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였다.⁵⁰⁾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덕교육과 국민교육을 좀 더 보강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국민통합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서였다. 교육칙어의 전문(全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짐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이 나라를 열어 덕을 베푸는 것이 대단히 깊고 두터웠다. 우리 신민이 극진히 충과 효를 다하여 역조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이며 교육의 연원 또한 실로 여기에 있다.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친구사이에 서로 신의하며, 스스로 공손하고 겸손하여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학문을 닦고, 기술을 익혀 지능을 계발하고 덕과 재능을 성취하고 나아가 공익을 넓혀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항상 국헌을 중하게 여기고 국법을 따라 유사시에는 의용으로 봉공하여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지켜야 한다.

이처럼 된다면 짐의 총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족히 그대들 조상의 유풍을 현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으로서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그릇되지 않고 중외(中外)에 베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함께 이를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지켜서 그 덕을 닦기를 바라는 바이다. ⁵¹⁾

49) 루스 베네딕트·김윤식의 역(2019) 『일본문화의 틀 국화와 칼』을유문화사 pp.277-278 참조

50) 大原康男解説(2016) 『教育勅語』神社新報社 pp.12-29 참조

51) 朕惟フニ我カ皇祖皇宗國ヲ肇ムルコト宏遠ニ德ヲ樹ツルコト深厚ナリ

교육칙어의 내용 또한 군인칙유와 마찬가지로 천황을 구심점으로 한 지침서이다. 서구열강을 따라잡기 위해 유입한 문물과 함께 따라온 것은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 사상 즉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메이지 정부는 이러한 개인주의 사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이 개인주의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학교 교육을 통해 개인 도덕은 차단하고 국민도덕을 심기 위함이었다. 교육칙어의 전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일본은 천손강림에 기반한 신화와 조상숭배를 기본으로 한 질서를 정립했다. 천황과 황실은 부모에 해당하며 백성들은 신하이자 자식이다. 즉 가족주의적 절대천황제 가부장제하에서 신민(臣民)사상을 강조하며 황실을 공경하도록 하였다. 황실은 자나 깨나 신민을 항상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격화하였다. 황실(조상)이 죽어서도 후손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고가네마루』 「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틀림없이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기로부터 구해주시는구나! 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하고 엎드려 절하였다.

「さてはわが亡親の魂魄、仮に此処に現はれて、わが危急を救ひ給ふか。阿那感謝し」ト伏し拜みつつ、
(p.72)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곤경에 처한 고가네를 이끄는 것은 죽은 아버지 쓰키마루의 영혼이다. 이를 확장하면 신민을 돌보고 있는 황실의 조상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세일계 천황가의 은혜를 받는 신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我カ臣民克ク忠ニ克ク孝ニ億兆心ヲ一ニシテ世世厥ノ美ヲ濟セルハ此レ我カ国体ノ精華ニシテ教育ノ淵源亦実ニ此ニ存ス爾臣民父母ニ孝ニ兄弟ニ友ニ夫婦相和シ朋友相信シ恭儉己レヲ持シ博愛衆ニ及ホシ学ヲ修メ業ヲ習ヒ以テ智能ヲ啓発シ德器ヲ成就シ進テ公益ヲ広メ世務ヲ開キ常ニ国憲ヲ重シ国法ニ遵ヒ一旦緩急アレハ義勇公ニ奉シ以テ天壤無窮ノ皇運ヲ扶翼スヘシ是ノ如キハ独リ朕カ忠良ノ臣民タルノミナラス又以テ爾祖先ノ遺風ヲ顕彰スルニ足ラン斯ノ道ハ実ニ我カ皇祖祖宗ノ遺訓ニシテ子孫臣民ノ俱ニ遵守スヘキ所之ヲ古今ニ通シテ謬ラス之ヲ中外ニ施シテ悖ラス朕爾臣民ト俱ニ拳々服膺シテ咸其德ヲ一ニセンコトヲ庶幾フ 明治二十三年十月三十日 御名御璽 大原康男解説(2016)『教育勅語』神社新報社 P.8 (번역은 논자가 함)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을 암암리에 주문했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염려 하듯이 천황은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신민은 천황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4회」에서 고가네가 자신의 고달픈 처지를 말하는 대목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부잣집의 문을 지키며, 목에 제대로 된 목줄도 하였던 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가의 개 곧, 들개가 되어 마음 편히 잘 집도 없고 배가 고파도 먹을 고기 한 점 없다. 밤이 되면 길가에 있는 작은 불당의 마루 아래에서 비와 이슬을 피하여 [가까스로 자려고 하면] 땅에서 기어 나온 버릇없는 두더지가 [나의 배 밑에서] 꿈틀거리 깜짝 놀라고 만다. 낮이 되면 술집 문 앞에서 생선뼈라도 구걸해 보려고 하지만 인정 없는 사람에게 지팡이로 내쫓김을 당하기만 할 뿐이다. 어떤 날은 마을의 아이가 데리고 나온 개와 대로에서 싸워야 했고, 어느 날은 가족을 노린 들개 사냥꾼에게 습격당해 덩불에 숨어 들어가 위험천만한 생명을 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고가네마루는 주인집을 나와서 여러 날, 산에 고립되며 [마을을 찾기 시작하였다.]

昨日は富家の門を守りて、頸に眞鍮の輪を掛し身の、今日は喪家の狗となり果て、寝るに窠なく食するに肉なく、夜は辻堂の床下に雨露を凌いで、無寐なる土豚に驚かされ。昼は肴屋の店頭に魚骨を求めて、情知らぬ人の杖に追立られ。或時は村童に曳かれて、大路に他し犬と争ひ、或時は撲犬師しに襲はれて、藪蔭危き命を拾ふ。さるほどに黄金丸は、主家を出でて幾日か、山に暮らし里に明かしけるに。(p.71)

위의 글은 주인의 비호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지켜주던 보호막이 없어졌을 때 겪게 되는 것은 고통과 굶주림이다. 교육칙어에서 천황을 정점에 두었을 때 모든 신민의 안녕이 있다고 하였다. 촌장 집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지낼 때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여유로웠다. 자신의 임무인 집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막상 주인집을 떠나 떠돌이 개가 되어보니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며 천황 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그리고 순종의 당연함을 다시 강조하였다. 텍스트 「6회」에서 초스이를 뒤쫓아 인가로 들어갔을 때 실수로 아이와 부딪쳐 그만 아이가 울고 만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가네의 목에 목줄이 없는 것을 보고 떠돌이 들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본이 없는 개의 소행이라고 착각하고 고가네를 매질한다. 도망칠 수도 있는데 고가네는 순순히 응하며 매를 달게 받는다. 고가네의 무저항은 개와 인간

의 관계를 넘어 천황에 대한 신민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억울함을 억누르기는 하였으나, [초스이를 놓친] 원통함에 흐르는 눈물이 땅을 파고 발버둥질에 나무가 흔들렸다.

人間に牙向ふこともならねば、おつと無念を壓ゆれど、悔し涙に地は掘れて、悶踏に木も動揺ぐめり。「6회」(p.80)

위에서 보듯이 고가네는 인간에게 대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이 모든 분통함은 원수 초스이로 인한 것으로 치부한다. 교육칙어의 핵심은 결국 경신숭조(敬神崇祖)이다. 신격화된 천황을 경외하는 종교적인 문서를 연상시키며 오로지 천황을 향한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도덕률이 국민도덕의 기초가 되는 공식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주입된 것이다. 사자나미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받들어 『고가네마루』안에 교묘하게 담아놓았다.

천황가의 조상신이 나라를 연 이래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만세일계의 정통성’을 앞세우고 유교의 충·효·인·의·예·지·신을 메이지 시대에 맞게 변용시켜 아동과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유소년기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소년기 교육의 중요성을 메이지시대 정부는 알고 있었다. 일본이 나아가야 할 제국주의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 절실했다. 산업을 일으키고 강한 군인을 양성해야만 했다. 『고가네마루』안에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한 덕목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그 덕목은 군인칙유와 교육칙어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시대는 어린이를 소국민이라고 보았다. 어린이나 아동이라는 호칭은 후일 정착된 것이다. 아동이라는 개념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에 의하면 풍경과 마찬가지로 근대 이후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의 아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 연구되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어른과 아동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갔다. 이렇게 볼 때 아동은 ‘작은 어른’으로 인식된 것이다. 물론 아동이 예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아이로서의 아이는 어떤 시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놀이나 문학이 존재한 적도 없었다⁵²⁾고 말한다. 작은 어른이었던 메이지 아동들은 공교육에서 의미도 모른 채 암기하

였다. 이와 같은 교육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교육칙어 발표에 앞서 ‘헌법제정’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헌법에서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각인시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한 후 교육의 현장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였다.

메이지 헌법의 내용은 ‘메이지 헌법(1889)’⁵³⁾의 1조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第一条大日本帝国ハ万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고 하였고 3조에서는 “천황은 신성으로 침범할 수 없다(第三条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고 규정되었다.

근대 서구의 헌법은 ‘군주’는 국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헌법을 통해 군주와 국민의 관계가 묵시적 약속을 맺으며 법적 인격을 부여받는다. 겉으로는 분명한 서구의 헌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메이지 문명개화를 상징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헌법의 내면은 고대 일본의 정통성을 고수하였다. 천황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훈인 양 수직관계만 요구한 일방적인 전달이었다.

‘메이지 헌법’이 성립된 이듬해에 발표된 교육칙어는 헌법의 특징상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접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이라도 하듯 메이지 헌법의 핵심을 요약하여 등본으로 만들어 가장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학교 교육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형태를 취하여 무의식적으로 신봉하도록 하였다. ‘헌법’과 ‘교육칙어’는 자국민교화의 장전으로 국민정신 통합을 끌어내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상징이 되었다. 천황이 국민도덕의 중심에 위치하고 일본국민 위에 군림한 것으로 천황이 곧 국가인 것이다.

메이지시대 초기에 몰릴 듯이 밀려온 서구열강의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사상, 여러 가지 학문이나 다양한 문명이 몽매한 국민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방해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차단할 필요를 느낀 메이지 정부는 경제나 기술적인 발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게 하였지만, 개인의 의지가 강해질 수 있는 정신은 철저히 막아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

52) 가라타니 고진·박유하역(201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pp.166-170

51) 대일본제국헌법(1889년 2월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29일에 시행)은 7장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세일계(萬歲一系)’로서 신성불가침의 천황이 국가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하였다. 따라서 군인척유와 교육척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일본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정신세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척어 발표는 전통적 국가주의와 부국강병을 핵심으로 삼으며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내놓은 교육의 방향은 천황의 국가를 위한 교육을 중점으로 ‘충군’과 ‘애국’을 일원화함으로써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민을 양성하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⁵⁴⁾ 이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불러일으켰고 광신적인 천황제 사상으로 만들어진 국민통합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더 나아가 러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다. 신격화된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인해 절대적 복종이 당연시되어 전쟁에서 무수한 희생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의 일화⁵⁵⁾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는 두 아들과 러일전쟁에 나갈 때 3개의 관을 준비하고 참전하였다. 마침내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 천황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모신 메이지 천황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1912.9.13.), 노기 마레스케는 천황을 추모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인과 함께 자결하였다. 일각에서는 봉건시대의 지나친 유습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그의 순사(殉死)는 당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⁵⁶⁾ 노기의 순사는 일본 무사도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그는 근대적 군신(軍神)으로 인정받았고 천황을 위한 군인정신의 상징적 존재로 남았다.

메이지시대 각 방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신민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주군과 신민(臣民)의 관계는 오로지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요구가 천황을 향한 충과 애국정신의 고취뿐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주입된 사상은 무의식 깊이 각인되어 일본국민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척어’의 준수는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을 만들었

54) 아시아문화연구원(2004) 『천황과 일본문화』박진우의「근대천황제와 일본군국주의」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pp.157-169

55) 大浜徹也(2010) 『乃木希典』講談社

56)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이 사건을 『마음(こころ)』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노기’의 자결이 메이지 천황 한 사람에 대한 ‘마지메’였다고 말한다. 모리 오가이(森鷗外)는 『오키즈 야고에몬의 유서(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를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5일만에 완성하였다.

다. 교육을 통한 어린 아동들의 의식형성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 애국심을 지니게 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장엄한 의식 속에 거행된 교육칙어 봉독은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천황을 향해 경외와 충성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긴다.

유년기부터 널리 민중에게 신민 의식을 주입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교육칙어’라고 한다면 군대교육에 있어서 ‘황군’이라는 관념 형성을 담당했던 것이 ‘군인칙유’다. 서구의 근대는 시민혁명을 통하여 일어났다.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생겨난 것이 근대국가의 형태다. 무엇보다 ‘자아’와 ‘개인’이 근대의 상징이다. 그러나 메이지의 근대는 개인의 의지는 없고 천황을 정점에 두고 모든 신민의 절대적 복종만이 있었다. 표면상으로만 근대국가였다. 『고가네마루』는 메이지 근대 아동문학으로 분류된다. 흥미진진하고 해학적인 내용과 새로운 기법으로 많은 독자를 매료시키며 근대 아동 창작물로 인정받고 훌륭한 작품으로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자각이 없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메이지시대와 함께 살아온 이와야 사자나미로서는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메이지가 추구한 제국주의 사상을 담은 작품이 탄생했다고 생각된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서 ‘메이지 20년대에 일본의 아동 잡지는 학교 교육의 보조물로서 출현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보더라도 『고가네 마루』가 메이지의 이데올로기를 담아 공교육 외 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 신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부국강병이다. 『고가네마루』「2회」에서 고가네의 어머니 하나세가 죽기 전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다.

그가 만약 어엿한 성견이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지금의 나의 이 말을 전해 주세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그 호랑이 놈(긴보)을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겠죠.

他もし一匹前の雄犬となりなば、その時こそは妾が今の、この言葉をば伝へ給ひて、妾がためには雄の仇、他がためには父の仇なる、彼の金眸めを打ち取るやう、力に成て給はれかし。(p.69)

후일 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하는 하나세의 유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임을 강조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

다'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메이지시대 급선무였던 부국강병을 연상할 수 있다.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서양의 앞선 문물의 위력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부국강병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힘을 길러야만 강력한 상대를 이길 수 있고 약육강식의 각축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단결된 국민의 힘이 필요하였으며 그 수단으로 절대주의 천황제가 대두되었다. 절대주의 천황제는 천황에 대한 '충'을 앞세우고 '의'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군인칙유와 교육칙어의 정신에는 의를 바탕으로 한 결속과 협동이 강조된다. 작품 「4회」에서 고가네와 사냥개 와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사냥감을 사이에 두고 결투를 한다.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지닌 둘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싸움을 한다. 둘이 결투를 벌이는 사이 고양이 먹이를 채 달아난다. 망연자실한 둘은 서로의 출신을 묻고 기량을 칭찬한 후에 의형제가 된다. 결국 와시로는 고가네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한 수행 길의 든든한 조력자로 합류한다. 고가네와 와시로의 결투를 사자나미는 '수호전'의 한 장면을 빌려 묘사한다. “서로가 치열한 싸움 끝에 얼굴들이 적송림처럼 붉게 물들어 버리는 형세가 구문룡⁵⁷⁾의 싸움이라 여겨지는구나”⁵⁸⁾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영웅호걸들의 활약상을 상기시킨다. 둘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한 후 의기투합한다. 그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명실상부 긴보는 노련한 대호. 내가 아무리 사냥에 뛰어났다 해도 호각의 승부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레를 죽이는 난폭한 그의 행동을 보고서도 눈감아주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고 그냥 둘 수도 없네] 지금 그대가 한 얘기를 들으면 정표를 맞춘 듯 서로 같은 마음일세. 지금부터 우리 둘이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합쳐 너석을 노린다면 언젠가 죽일 수 있을 걸세”라고 와시로가 말하자 고가네마루는 용기 충만하여 “잘 부탁하네, 그대의 그 온전한 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지금부터 우리는 비록 부모는 다르지만 의를 맺은 형과 동생이 되어 서로 힘을 모으세”

「名に負ふ金眸は年経し大虎、われ怎麼に獵に長けたりとも、互角の勝負なりがたければ、虫を殺して無法なる、他が拳動を見過せしが。今御身が言葉を聞けば、符を合す互ひの胸中。これより両犬心を通じ、力を合せて彼奴を狙はば、いつれの時か討たざらん」ト。いふに黄金丸も勇み立ちて、「頼もし頼もし、御身已にその意ならば、某また何をか恐れん。これより両犬義を結び、親こそ異れこの後は、兄となり弟とな

57) 시내암·방영학 외 역(2012) 『수호전1』 (주)글항아리 pp.227-246 참조

58) 「互ひに挑闘ふさま、彼の花和尚が赤松林に、九紋竜と争ひけるも、かくやと思ふ斗りなり」p.75

りて、共に力を尽すべし。」(p.77)

위의 내용은 「5회」에서 와시로가 고가네의 사연을 듣고 조력자로 합류하게 되는 대목이다. 와시로는 뛰어난 사냥개이지만 자만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군인칙유에서 “군인은 무용(武勇)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혈기 왕성하여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용이 아니며, 명분이 없는 싸움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지가 필요함을 말한다. 군인칙유와 교육칙어는 굳은 의지와 결집의 중요성을 전한다. 고가네와 와시로는 처음에는 경쟁하는 관계이며 막상막하의 맞수였다.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고 배울 점이 있어서 형제의 인연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라는 속담도 삽입한다. 둘의 만남은 악의 세력(호랑이와 여우)과 대항할 수 있는 선의 세력 탄생을 말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하며 근대화의 일환으로 문명개화를 서두른다. 동시에 부국강병책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전근대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사도를 기반으로 한 천황제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통합을 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합의 수단으로 내세운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천황을 위해 신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장치가 대부분이다.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남성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근대의 가부장제는 그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메이지 여성의 역할은 자립적이지 못하며 수동적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고수해야만 했다. 앞서 고가네 어머니 하나세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가네마루』「9회」에서 쥐 오코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쥐약⁵⁹⁾을 먹게 된들 지옥에 떨어진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가령 석유램프 불속도, 대야물에 빠지더라도 [대수롭지 않다]. 죽어서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 세상에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石見銀山榊落し、地獄落しも何のその。縦令ひ石油の火の中も、盥の水の底までも、死なば共にと盟ふたる、恋し雄に先立たれ、何がこの世の快樂ぞ。(p.91)

59) 石見銀山(いわみぎんざん):島根縣(しまねけん) 石見(いわみ)의 은광에서 나는 비석(砥石)으로 만든 쥐약이다.

위의 오코마의 대사는 희극적 재미를 연출하고 있다. 봉건적 여성의 이미지를 지닌 오코마가 근대의 문물인 석유램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지 문명 개화의 상징인 석유램프는 1877년 무렵 도입되었다.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며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오코마는 메이지 시대의 문명개화 안에 속해 있으므로 이는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메이지시대는 부국강병이 최우선의 가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도 중요했다. 여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아이를 잘 훈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내하는 강인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텍스트 「2회」에서 고가네 어머니 하나세는 병이 깊어져 뼈만 앙상한 초췌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참고 고가네를 낳는다. 다음은 하나세의 유언이다.

“[저는] 불행하게도 병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놓였고, 벌써 죽었을 몸이지만 어렵게 연명하며 버티어 드디어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いひ甲斐なくも病に打ち臥し、已に絶えなん玉の緒を、辛く繋ぎて漸くに、今この児は産み落せしか。(p.68)

오코마와 하나세의 모습을 통해 메이지시대가 요구하는 지조 있는 여성상과 자식을 위해 목숨 거는 강인한 어머니상을 발견할 수 있다.

III. 결론

서구에서도 아동이라는 개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 비슷한 시기에 이와야 사자나미는 처음부터 아동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하며 『고가네마루』를 집필하였다는 것은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본고는 일본 근대 최초의 아동용 동화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권선징악·인과응보·원수 갚기 등의 소재는 전근대적이라고 일찍이 지적을 받아왔다. 본고는 순수한 아동을 위한 창작동화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전반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고찰했다. 그 근거로 ‘군인칙유’와 ‘교육칙어’의 이념이 교묘히 들어있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동이 읽기에 지나치게 잔인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는 지적은 근대적 문학 관점에서의 판단이다. 근대 이전 서구의 동화와 민담은 거의 모두 잔혹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고가네마루』탄생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자나미의 유년 시절과 성장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에서 그가 동화작가로 출발하게 된 흔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린 시절의 사자나미를 둘러싼 환경은 책과 예능을 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는 가업인 의학 분야보다는 문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할머니는 원래 궁궐의 여러 귀족 밑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교양이 많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린 사자나미에게 궁중의식 중 하나인 가구라를 접하게 하였고 일본 옛날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어 일찌감치 에도시대의 문학과도 친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그의 작품 『고가네마루』에 여실히 투영되어 있음을 도출했다. 사자나미가 후일 문학단체인 겐유사에 들어가 소년 소녀 취향의 작품을 쓴 것을 계기로 하쿠분칸 출판사로부터 고가네마루 집필 의뢰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등장인물이 지닌 이름의 표상을 통해 각자의 특색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름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각각의 등장인물은 이름에 걸맞은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자나미의 심사숙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주인공 고가네를 영모(翎毛)한 빛을 내는 황금빛 털을 가진 것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영웅적인 상징을 나타냈으며, 영웅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기 위해 고난의 수행 길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입신양명을 위한 통과의례로써 메이지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려졌다고 보았다. 주인공의 조력자인 와시로는 독수리와도 같은 뛰어난 사냥 실력과 신의를 갖춘 인물로 표상되었다. 분가쿠는 문무를 겸비한 이미지로 등장하며 고가네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한편 여성 등장인물인 오코마와 도모시의 표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존여비의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코마가 고가네에게 보은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대목에서는 무사도정신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메이지시대는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양성이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했다. 이에 대한 표상은 하나세와 보탄을 통해 그려

지고 있는데 메이지시대가 요청하는 여성상으로 보았다.

여우 초스이의 경우는 특이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스이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등장했으나 회개를 통해 자신의 업보를 소멸시키고 선을 지향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이는 동화로서의 교훈적인 의도를 담기 위한 설정으로 본다. 호랑이 긴보는 강하고 용맹한 이미지의 외관과는 달리 초스이에게 조종을 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둔함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장에서는 동서양 고전의 다양한 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자나미는 잘 알려진 일본의 전승설화(가치가치야마, 모모타로 등)들을 작품에서 언급함으로써 익히 알고 있는 설화의 후속편을 보는 듯한 흥미를 끌어내고 있다.

‘도가쿠시 전설’을 통해서도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하여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드러냈음을 살펴보았다. ‘시시 이야기’는 주인공 고가네와 초스이가 맞게 될 결말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았다. 항아전설은 한·중·일에서 널리 알려진 불로장생의 이야기다. 사자나미는 달과 토끼 이야기를 각색하여 시련에 부딪힌 고가네를 회복하게 만드는 연결고리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메이지 정부가 중시한 군인칙유와 교육칙어가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메이지 신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만든 군인칙유와 교육칙어의 주요한 메시지인 충과 효의 사상이 『고가네마루』의 도처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보았다. 고가네와 와시로는 막상막하의 실력을 갖춘 자로 나온다. 둘은 결투 끝에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도원결의의 의형제가 된다. 이후 둘은 끝까지 함께 하며 ‘원수 갚기’라는 목표를 완수한다. 이는 ‘군인칙유’의 중요한 가르침인 ‘신의’에 부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가네마루』를 통해 문학작품은 시대조류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동심주의 순수창작동화로서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 작품을 쓴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메이지에 태어나 격동기를 살면서 겪은 경험과 시대정신이 이렇게 쓰도록 했다고 추론한다. 많은 문제점에 도 불구하고 작품의 극적인 구성과 기발한 발상으로 볼 때 일본 근대아동문학의 장을 연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가라타니 고진·박유하 역(201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 가라타니 고진·송태욱 역(2002) 『근대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 가와하라 가즈에·양미화 역(2007) 『어린이관의 근대』 소명출판
- 고토 야스시외·이남희 역(2006) 『천황의 나라 일본』 예문서원
- 김영순(2014) 『일본 아동문학 탐구』 채륜
- 루스 베네딕트·김윤식 역(2013)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 무라카즈 시게요시·최길성 역(1989) 『일본의 종교』 예진
- 박진우(2007) 『근대일본형성기의 국가와 민족』 제이앤씨
- 시내암·방영학 외 역(2012) 『수호전1』 (주)글항아리 pp.227-246 참조
- 쓰지모토 마사시외·이기원 외 역(2012) 『일본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 아시아문화연구소(2004) 『천황과 일본문화』 한림대학교출판부
- 아케가미 에이코·남명수 역(2008) 『사무라이의 나라』 (주)지식노마드
- 야마모토 쓰네토모·이강희 역(2013) 『하가쿠레』 도서출판 사과나무
- 양영민(2013) 『사무라이의 침략근성과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 도서출판 좋은땅
- 요한 볼프강 폰 괴테·윤용호 역(2010) 『괴테의 여우 라이네케』 중문화사
- 요한 볼프강 폰 괴테·하빈영 역(2014) 『괴테의 환상 동화』 현복스
- 윤광봉(2009) 『일본 신도와 가구라』 대학사
- 이병담(2007) 『근대일본 아동의 탄생』 제이앤씨
- 이안 부루마·최은봉 역(2005) 『근대일본』 을유문화사
- 이어령 편집(2010) 『十二支神 토끼-한중일 비교문화시리즈-』 생각의 나무
- 정인문(2001) 『일본 근대문학사의 재인식』 도서출판 영한
- 타키코지·박삼헌 역(2007) 『천황의 초상』 소명출판
- 필립아리에스·문지영 역(2003) 『아동의탄생』 새물결 출판사
-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형진의 외 역 『국체의 본의』 어문학사
- S.시그레이브P.강만진 역(2000) 『일본인도 모르는 천황의 얼굴』 (주)신영미
디어

【논문】

- 김성연(2016) 「이와야 사자나미의 하이가(俳画)」-구연동화 활동 양상과 하이가의 역할에 대해서-『일본근대학연구 제54권』 pp.197-218
- 오타케 기요미(2008) 「이와야 사자나미(岩谷小波)와 근대 한국」『한국아동문학 연구 제15권』 pp.149-167
- 이병남(2005) 「근대 일본 아동의 탄생과 신민 만들기」『일어일문학 제25권』 pp.239-266
- 이재우(2009) 「이와야사자나미 연구 -방정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충남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근대일본최초의창작아동소설 『고가네마루(こがね丸)』연구-반근대 (전통)와 근대의 경계-」『일어일문학연구 69권 2호』 pp.425-440
한일일어일문학회

【일본문헌】

- 岩谷小波(1998) 『「おとぎばなし」をつくった 岩谷小波 一我が五十年一』 ゆま書房
- 岩谷大四(1993) 『波の跫音』 文芸春秋
- 大原康男 解説(2016) 『教育勅語』 神社新報社
- 桑原三郎編(1994) 『日本児童文學名作集(上)』 岩波文庫
- 坪田讓治(1963) 『現代日本童話集』 講談社
- 大浜徹也(2010) 『乃木希典』 講談社
- 日夏耿之介著者(1978) 『明治浪漫文学史』 中央公論社
- 三島由紀夫(1978) 『葉隠入門』 武士道は生きている 光文社

【논문】

- 王瑜(2009) 『こがね丸』論. 同志社大学大学院博士科程
- 成琬珂(2016) 文部省編『尋常小学読本』の考察-教科書にあらわれた日本近代国家の教育理念- 日本語教育研究 第37輯 pp.101-117
- 住谷伸一 「こがね丸」論争によせて 一竹中先生の家系と 岩谷小波一

Review of *Koganemaru* by Iwaya Sazanami
-The Spirit of the Times Embodied in the Characters -

Jeon, So-young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upervising Professor Kim, Nan-hui

This thesis studies *Koganemaru* (1891), written by Iwaya Sazanami (1870-1933), who is known as a pioneer of Japanese children's stories. The paper focuses on and looks into the background behind the creation of *Koganemaru* and how the spirit of the Meiji period is embodied in the character.

Koganemaru was a popular children's story that was written as the first volume in the 『Juvenile Literature』 series organized by Haku-bunkan, a newly established publisher at that time. It was in modern times that the West began to recognize the concept of children's literature. It is considered a groundbreaking achievement that during the same period, Sazanami wrote stories, taking children's taste into consideration from the beginning. However, taking note of the fact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it despite its significance as the first modern children's fairy tale in Japan,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story. The problem is that political ideology is generally included in the creative fairy tales for innocent children. As the grounds for this argument, the issue has been raised that the ideas of loyalty towards the king and filial piety from the Imperial Mandate for Soldiers and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are cleverly reflected in the story.

First, in Chapter 1, the paper examines what lies behind the creation of

Koganemaru. To that end, the focus has been placed on the author's family background and what happened while he was growing up, all of which serves as a crucial motivation for him to start as a fairy tale writer, according to what the paper discovered. From his childhoo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Iwaya Sazanami created an atmosphere where he inevitably had access to books and entertainment, and this thesis looks into how he ended up pursuing literature rather than medicine, which was his family's business.

In Chapter 2, the role of each character was deduced by analyzing what the name of each character represents; in other words, each character exhibits behaviors corresponding to its name. The main character, Goganemaru, has a motif of typical heroic tales. The work shows a confrontation between advocates and opponents surrounding the main charact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writer expresses the special spirit of the Meiji period through the role of the characters.

Chapter 3 examines the various images of the East and West classics. The method Sazanami uses is to insert folk tales that are well-known in Japan into the work. Such a method is thought to create interest that people feel as if they were watching the sequel to a familiar folk tale. On top of that, *The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Outlaws of the Marsh*, two Chinese classics, are also cited, and various images considering educational aspects are represented.

Lastly, this thesis selects the Imperial Mandate for Soldiers and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as the spirit that penetrates the entire work and studies how they are projected in the story. Highlighted in the Imperial Mandate for Soldiers and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which the new Meiji Government made for national integration, are the ideas of loyalty towards the king and filial piety, and the paper shows that this is faithfully reflected in the work.

This work was written by Iwaya Sazanami at the age of twenty, a man

who grew up in the turbulence of the Meiji era. As a young writer, who was able to understand the feelings of adventurous children, it is thought that he could create dramatic plots and novel ideas. It is clear that this work opened the way for modern Japanese children's literature, but it is a pity that a literary work targeting children contains the spirit of the times of imperialism.